



정답과 해설



본책 02

시험 대비 문제집 35

1 정보의 숲에서 길을 찾기



요약하며 읽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08쪽

01 (1) ○ (2) × 02 ⑤ 03 ① 04 이야기

- 01 (1) 요약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림’으로 ‘줄거리 요약’ 등과 같이 쓰인다. (2) 설명하는 글은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대상과 그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 02 글을 요약할 때에는 글의 특성과 글을 읽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글의 정보를 얼마나 적절하게 요약했는지 중요하지, 요약하는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 03 요약의 규칙 중 ‘선택’은 글의 중심 내용이 직접 드러난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하는 방법이다.
- 04 이야기는 산문 문학의 한 갈래이므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제재 1 「아름다운 별뿔별의 비밀」

학습목

009~012쪽

- 009쪽 처음 소주제: 별뿔별
① 질문
② 별뿔별
- 010쪽 가운데 1 소주제: 정체
② 우주 먼지, 중력, 태양
- 011쪽 가운데 2 소주제: 유성우
① 유성우, 유성우
② 비
- 012쪽 ② 소원, 일본
- 012쪽 끝 소주제: 아름다움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09~012쪽

- 009쪽 (1) 떠오르다 (2) 공전
- 011쪽 (1) ㉠ (2) ㉡ (3) ㉢
- 012쪽 (1) 암시 (2) 징조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09~012쪽

- 009쪽 01 ③ 02 ③
- 010쪽 03 태양 04 ⑤ 05 ④
- 011쪽 06 ② 07 ②
- 012쪽 08 ⑤ 09 ④

- 01 1문단에서 별뿔별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떨어지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별뿔별이다.
- 02 우주를 떠돌던 우주 먼지가 지구의 중력에 붙잡히면 지구로 떨어지는데, 이때 우주 먼지가 지구의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낸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별뿔별은 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 상상만 해도 즐겁다.”라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④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하는 것은 별뿔별이 아니라 혜성이다. 혜성은 가스 상태의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태양을 초점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하는 천체를 말한다.
⑤ 2문단에서 별뿔별은 지구와 가까워지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로 떨어진다고 하였다.
- 03 낮에는 별뿔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훨씬 밝기 때문에 선명한 별뿔별은 늦은 밤이나 새벽이 되어야 볼 수 있다.
- 04 별뿔별은 주로 햇빛이 없는 시간에 볼 수 있으며, 선명한 별뿔별은 늦은 밤이나 새벽이 되어야 볼 수 있다.
- 05 4문단에서는 유성우를 별뿔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유성우’라는 이름의 뜻을 분석하는 한편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유성우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유성우의 개념’이 가장 적절하다.
- 06 유성우는 우주 먼지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한꺼번에 쏟아질 때 지구의 대기와 마찰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다. 그리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항성이다.
- 07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에서는 공통적으로 별뿔별이 소원이 들어준다고 믿는다.
- 08 고대 그리스인들은 별뿔별을 보면서 위대한 존재의 종말을 떠올렸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④ 별뿔별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 09 글쓴이는 8문단 마지막 두 문장을 의문형과 청유형으로 끝맺음으로써 독자에게 밤하늘의 별뿔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활동

013~015쪽

- 013쪽 1 소행성, 유성우
014쪽 2 빛 3 무리, 별뿔별
015쪽 4 공전, 소원

학습목

013~015쪽

- 015쪽 ① 문단, 목적
② 내용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13~015쪽

- 013쪽 01 ③ 02 ② 03 ③
014쪽 04 ① 05 ⑤ 06 ②
015쪽 07 ⑤ 08 ⑤

- 01 4문단에서는 별뿔별이 무리를 지어 떨어지는 현상인 유성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2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거나(ㄷ),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성 단계별로 요약하는 것(ㄱ)이 적절하다.
- 03 6문단에서는 별뿔별을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의 사례를 나열하고, 7문단에서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의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별뿔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별뿔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대조하고 있다.
④ 별뿔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나라로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을 나열하고 있다. 별뿔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곳으로는 유럽, 고대 그리스, 고대 동양을 나열하고 있다.
⑤ 6문단에서는 별뿔별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을, 7문단에서는 별뿔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04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별뿔별은 무엇인지, 또 밤하늘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떨어지는지 알아보자고 하면서 설명하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05 대상의 뜻을 밝히는 정의의 방법으로 2~3문단에서는 별뿔별의 개념을, 4~5문단에서는 유성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06 별뿔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훨씬 밝기 때문에 낮에는 별뿔별을 볼 수 없다. 또한 밤이라도 별뿔별이 워낙 빠르게 떨어지기에 별뿔별을 보는 일이 쉽지는 않다.

- 07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글에서 필요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 문단을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글을 요약해야 한다.
- 08 요약 내용은 유성우의 개념과 유성우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읽기 목적은 유성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재 2 '복 타러 간 총각'

학습목

016~021쪽

- 016쪽 처음 소주제: 복
① 옛날, 배경
② 끝머슴, 끝머슴
018쪽 가운데 1 소주제: 하늘나라
② 시집, 국화꽃, 승천
020쪽 가운데 2 소주제: 옥황상제
① 복 주머니
② 욕심, 금덩이
021쪽 끝 소주제: 결혼
① 여의주, 금덩이, 처녀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16~021쪽

- 017쪽 (1) 딱했다 (2) 재촉했다
018쪽 (1) ○ (2) × (3) ○
019쪽 (1) 천상 (2) 애원하다
021쪽 (1) 여정 (2) 배필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16~021쪽

- 016쪽 01 ② 02 복
017쪽 03 ⑤ 04 ⑤
018쪽 05 국화꽃, 이무기 06 ②
019쪽 07 ④ 08 ④
020쪽 09 ② 10 총각 11 ③
021쪽 12 ⑤ 13 ④

- 01 이 글은 설화 중에서도 민담에 속하며, 일상적인 인물을 내세워 교훈과 흥미를 주는 허구적 이야기이다.
- 02 총각은 삼 년이 지나도 끝머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자신이 복을 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을 구하기 위해 하늘나라로 길을 떠난 것이다.

- 03 처녀는 혼담이 오갈 때마다 상대가 병에 걸려 시집을 가지 못했다. 그래서 총각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 04 동자들은 자신들이 하늘로 가려면 국화꽃이 다시 피어야 하는데 십 년을 가꿔도 꽃이 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 05 한국 전설에서 이무기는 물속에서 천 년 동안 수련하면 용으로 변한다고 한다. ‘노인’은 강에서 천 년을 산 이무기로 승천할 때가 되었지만 승천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 06 총각은 복이 없어 자신의 복을 타러 가는 길이었지만, 처녀, 동자들, 노인의 고민을 듣고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07 노인의 도움으로 강을 건넌 총각은 하늘에서 내려온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뿐, 무지개 끝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 08 총각은 자신의 복을 타기 위해 하늘나라에 간 것인데 복 주머니가 비어서 결국 복을 탈 수 없었다. 이에 옥황상제는 총각의 사정이 가여워서 대신 다른 부탁이라도 들어주려 한 것이다.
- 09 노인이 승천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이 많아 여의주를 세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은 여의주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두 개를 총각에게 주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
- 10 옥황상제의 대답에서 이무기는 여의주 두 개를 뱉어 내야 하고, 동자들은 금덩이 세 개를 파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처녀의 배필이 될 남자의 조건과 일치하는데, 결국 총각이 이것들을 받아 처녀의 남편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1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서 총각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총각이 길을 떠나는 계기가 될 뿐,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총각이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건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이 글은 총각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처녀가 사는 마을, 동자승이 있는 국화꽃밭, 노인 이무기가 있는 큰 강,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 나라 등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이 글은 착한 총각이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결국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으므로 교훈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이 글에는 처녀, 동자승, 노인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과 총각이 이를 해결해 주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 12 총각은 처녀를 만나 옥황상제의 대답을 먼저 들려준다. 그리고 나서 처녀가 옥황상제가 말한 조건에 맞는 남자가 있다면 풀머슴이어도 상관없다고 하자 그제야 금덩이와 여의주를 처녀에게 내밀며 그 조건에 맞는 남자가 자신임을 밝힌다.
- 13 총각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착한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받는다. 하지만 옥황상제를 만나러 간 것은 복을 타기 위해서이지, 그 자체가 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활동

022~023쪽

022쪽 1 승천, 금덩이

023쪽 3 주제, 말

학습곡

022~023쪽

022쪽 ① 교훈, 인물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22~023쪽

023쪽 (1) 비범한 (2) 막연한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22~023쪽

023쪽 01 ② 02 ②

- 01 마중 그림 속 기와집, 전통 의상, ‘복’과 관련된 내용 등을 보면,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가 아닌 옛날을 배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 02 이야기는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낸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다. 과학 현상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처럼 허구가 아닌 사실을 다루는 글을 읽는 것이 좋다.

압축 파일

025쪽

① 빛 ② 별똥별 ③ 유성우 ④ 문단 ⑤ 목적 ⑥ 하늘 나라 ⑦ 동자들 ⑧ 교훈

발전 활동

026~029쪽

028쪽 1 가뭄, 마그마, 바닷물

학습곡

026~029쪽

027쪽 ① 지진

② 호우, 비, 암석, 땅, 화산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26~029쪽

027쪽 (1) × (2) ○

026쪽 01 ① 02 ⑤ 03 ⑤

027쪽 04 ③ 05 ④

028쪽 06 ㉠ 기상, ㉡ 가뭄 07 ④ 08 ⑤

029쪽 09 ⑤ 10 ② 11 ④

01 이 글은 자연재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재해를 기상에 의한 재해와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기상에 의한 것과 지각 변동에 의한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중심 내용은 둘 다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③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의 개념과 종류를 다루고 있을 뿐 이로 인해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다루고 있지 않다.

02 자연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기상에 의한 재해와 지각 변동에 의한 재해로 나눌 수 있다.

03 우리나라의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철까지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홍수가 아니라 가뭄이 발생한다.

04 건조 기후 지역은 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화산 활동과 지진은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등 지각 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05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로 홍수, 가뭄, 화산 활동, 지진, 지진 해일(쓰나미)을 다루고 있다.

06 <보기>는 자연재해 중에서 기상 원인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정리하고 있다. 기상에 의한 재해에는 비가 많이 내려 물이 크게 불어 넘치는 현상인 홍수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르고 물이 부족한 현상인 가뭄이 있다.

07 [A]는 자연재해를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여, 자연재해의 원인과 종류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구조도이다.

08 이 글은 자연재해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설명 대상의 핵심 개념과 그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교과서의 내용이나 요약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줄글, 그림, 도표 등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0 [A]는 과학 교과서에서 '생물의 분류'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생물을 분류하는 네 가지의 항목을 도표로 정리하고 있다.

11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요약을 한다고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1 ④ 02 ④ 03 유성우 04 ③ 05 ① 06 ④
07 ②

01 글을 요약하는 것은 글의 구조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기 위해서이다. 이때 ①의 선택, ②의 삭제, ③의 일반화, ⑤의 재구성과 같은 요약하며 읽기의 규칙을 고려하여 글을 요약할 수 있다.

02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별뿔별을 별에서 떨어져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별뿔별은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가 중력에 의해 지구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03 (나)에서는 유성우의 개념과 유성우가 떨어지는 시기를, (다)에서는 유성우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04 설명하는 글을 요약할 때에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 이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 ㉣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이지만, ㉤은 중심 문장이 아니므로 요약할 때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05 총각은 남의 복을 빼앗아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다. 복을 타러 하늘나라에 갔지만 복 주머니가 비어서 복을 타지 못한다. 하지만 총각은 그 대신에 다른 인물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을 옥황상제에게 알아온다. 이처럼 남을 돕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기에 결국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총각이 처녀를 찾아갈 때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들고 간 점에서 동자승과 이무기에게서 이것들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③ 옥황상제는 총각에게 복을 주려고 했으나 복 주머니에 복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총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준 것이다.

④ 총각은 '자신의 마을 → 처녀가 있는 기와집 → 동자승의 꽃밭 → 이무기가 있는 큰 강 →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 순서로 이동하였다가 거꾸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즉, 이무기와 동자승을 만난 후에 처녀의 집에 오게 되는 것이다.

⑤ 기와집에 사는 것으로 보아 처녀의 신분은 꼴머슴인 총각보다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처녀는 결혼할 수만 있다면 총각이 꼴머슴이어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였다.

06 동자승들의 국화꽃밭에 국화꽃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금덩이가 꽃밭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옥황상제는 이를 파내면 바로 국화꽃이 핀다고 하였다.

07 핵심 개념과 이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과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글에 적절하다. 이 글은 이야기 글이므로 인물, 배경, 사건, 주제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요약하는 것이 좋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32쪽

01 (1) ○ (2) × 02 ② 03 출처, 왜곡

- 01 (1)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 (2) 어떤 주제에 대해 관찰하거나 실험을 한 후에 이를 정리한 글은 보고서라고 한다.
- 02 자료의 수집과 선별은 내용을 조직하기 전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03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를 가져온 곳이 어디인지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자료의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면 안 된다.

활동

033~043쪽

- 033쪽 1 독도, 지리
036쪽 1 울릉도, 수산 자원
037쪽 1 지하자원, 지질학
041쪽 1 삭제
2 주제
042쪽 2 시각

학습곡

033~043쪽

- 037쪽 ① 매체
② 주제
038쪽 ③ 표
041쪽 ① 문장, 사진, 출처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33~043쪽

- 033쪽 01 ② 02 ③
034쪽 03 ③ 04 ③
035쪽 05 ④ 06 ③
036쪽 07 ① 08 ④ 09 ①
037쪽 10 (1) (가), (나) (2) (마), (사), (아), (자)
11 ② 12 ③
038쪽 13 ① 14 ③ 15 ③
039쪽 16 ① 17 ① 18 ①
040쪽 19 ④ 20 ④ 21 8문단
041쪽 22 ③ 23 ③ 24 ③
042쪽 25 ⑤ 26 ⑤ 27 ③
043쪽 28 ④ 29 ①

01 글의 구조는 '처음-가운데-끝'의 3단 구성과 같이 글을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말한다. 그러나 우주의 글쓰기 계획으로 볼 때 글의 구조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2 우주는 여러 자료를 모아 독도를 알리는 글을 쓰고자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주제로 삼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우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알리고자 하고 있다.
② 우주는 독도의 미적 가치보다는 자원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를 홍보하고자 한다.
④ 우리 학교 친구들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⑤ 독도를 다녀와서 감상을 적은 기행문이 아니다.

03 면담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주는 매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뿐, 독도에 관한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다.

04 다른 사람의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라)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05 (아)에서는 독도와 울릉도 주변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산 자원은 바다나 강 따위의 물에서 생산되는 자원으로, 어류·패류·조류가 속한다.

06 (사)에는 연도별 독도의 공시 지가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독도의 공시 지가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며, 이를 그래프와 함께 제시하면 자료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진다.

07 우주는 외교부 독도 누리집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독도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 오답풀이** ② (나)의 신문 기사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가깝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아)의 책에서는 독도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④ (마)와 (바)의 텔레비전에서는 각각 독도의 풍부한 수산 자원과 독도 새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다)의 백과사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8 (마)와 (바)는 모두 독도의 수산 자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자료이므로, 두 자료 모두 글에 담을 만큼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수집한 정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풀어쓰거나 정보의 제시 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가), (나)에는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마)에는 수산 자원의 가치, (사)와 (아)에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 (자)에는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있다.

- 11 우주가 쓰려는 글은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알리는 글이므로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12 글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독자를 설정하는 것은 글쓰기의 첫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 13 '상징물'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물체를 말한다. '독도의 상징물'은 독도의 지리나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14 개요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오면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있는 내용을 추론해야 한다. [A] 항목의 상위 항목은 '독도의 자원 가치'이고, 같은 위상의 항목은 '수산 자원의 가치'이므로 [A]에 들어갈 내용이 '지하자원의 가치'임을 추론할 수 있다.
- 15 개요를 작성하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를 글의 짜임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 16 이 글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독도를 소개하고 독도의 가치를 알리는 글이다.
-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글이지 여행을 하고 난 느낌을 적은 기행문이 아니다. 또한 글에 우주의 독도 여행 경험 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이 글은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설명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 ④ 글의 처음 부분에서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예상 독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독도 다큐멘터리 감상은 우주가 독도를 알리는 글을 쓰고자 한 계기가 된 일이다.
- 17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비롯해 주변에 딸린 89개의 작은 섬까지 포함한다.
- 18 2문단을 통해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19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독도의 일부 바위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20 "독도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14도로 온난한 편이며, 독도의 날씨는 안개가 잦고 눈과 비가 자주 내려서 비교적 습하다."라는 문장은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라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 21 8문단은 이 글의 끝부분으로 독도에 관심을 기울이자는 글쓴이의 당부 및 가족들과 독도로 여행을 떠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22 우주의 글에서 1문단과 8문단에 글을 쓴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 23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사진, 도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독자가 글에

제시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24 도표, 그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25 저마다의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⑤는 주장하는 글에 어울리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26 학교 친구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글이므로 학급 게시판, 학교 누리집, 학교 신문, 친구들과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27 태권도 기술을 설명할 때에는 그 자세를 직접 보여 주는 사진이나 영상이 적절하다.
- 28 태권도 기술인 지르기, 차기, 막기를 설명하는 부분은 '가운데-2'이므로 관련 시각 자료도 해당 부분에 첨부해야 한다.
- 29 <보기>는 올림픽에서 태권도 경기를 치르는 방법과 점수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 메달을 수여하는 순서를 설명하고 있는 ①은 글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 압축파일

045쪽

- ① 독도 ② 독자 ③ 신문 ④ 가치 ⑤ 경제적 ⑥ 자원
⑦ 용어 ⑧ 쓰기

발전 활동

046~047쪽

- 047쪽 1 전자책
2 종이책, 디지털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46~047쪽

- 046쪽 (1) 문해력 (2) 융통성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46~047쪽

- 046쪽 01 ② 02 ②
047쪽 03 ② 04 ⑤ 05 ④

- 01 (가)~(다)는 문화 체육 관광부의 누리집에서 얻은 자료이고, (마)는 책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그리고 (라)는 직접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 02 (나)에서는 중학생이 1년 동안 종이책과 전자책을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을 알 수 있다.

- 03 조사 비용은 조사를 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말한다. 설문 조사에서 조사 비용은 설문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 04 마지막 조사 소감과 평가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융통성 있게 함께 읽자고 하였다.
- 05 조사 보고서의 ‘끝’ 부분에 조사 소감과 평가가 들어가지만 보고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감상이 풍부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48쪽

01 ② 02 ④ 03 ①

- 01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②에 제시된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이다.
- 02 우주가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알 수 있지만, 독도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다른 누리집의 주소를 글에 담지는 않았다.
- 03 독도가 경상도에 포함된 이유는 글의 주제와 맞지 않으므로 이 글을 고쳐 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49~051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6 ③
07 ④ 08 ③ 09 ④ 10 ① 11 ⑤ 12 ①

- 01 (나)에서는 별뿔별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별뿔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강해서 낮에는 볼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별뿔별이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야 2~3초밖에 안 되어서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02 (가)에서 별뿔별이라는 이름만 보면 별에서 떨어져 나온 무엇인가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별뿔별은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유성(流星)’은 흐르는 별이라는 뜻으로 별뿔별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② 태양 빛이 별뿔별의 빛보다 강하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별뿔별을 볼 수가 없다.
③ 유성우는 우주 먼지들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지구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다.
⑤ 유성에 비 우(雨) 자를 붙인 유성우는 하늘에서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별뿔별을 말한다.
- 03 (다)에서는 한자의 의미를 바탕으로 유성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유성우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

다. 따라서 <보기>의 읽기 목적을 고려한다면 (다)와 (라)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 04 ㉠ 앞에는 결과가, 뒤에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앞에는 유성우의 개념이 뒤에는 유성우가 생기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는 두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그렇다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5 이 글은 설화 중에서 민담 갈래에 속한다. 민담은 ‘옛날’처럼 막연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 06 총각은 복이 지지리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풀머슴을 하는데 삼 년이 지나도 중머슴이나 상머슴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총각은 하늘나라에 가서 자신의 복을 직접 타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다.

- 07 총각은 자신의 복을 타러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처녀, 동자 세 명, 노인을 차례로 만난다. 이들은 저마다 고민이 있었는데 총각은 그 고민을 모두 들어주고 하늘나라에 가면 해결 방법을 물어봐 주기로 한다. 이를 통해 총각이 인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총각은 처녀, 동자승, 노인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갔다가 이 길을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이로 보아 총각이 처녀, 동자승, 노인들의 고민을 하늘나라에 물어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총각이 처녀의 기와집으로 돌아갔음은 알 수 있지만, 이는 처녀가 왜 시집을 못 가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함이지 머슴을 살려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총각의 이동 경로에 하늘나라가 있으므로 총각이 하늘나라에 결국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총각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큰 강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하늘나라에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총각이 마지막으로 간 곳은 처녀의 기와집이므로 총각이 다시 자신의 마을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 09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 설명 대상에 대한 중심 내용은 ‘가운데’ 부분에 제시된다. (가)의 ‘가운데’ 부분에서 독도의 지리와 독도의 가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 10 독도의 자원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가 제시되어 있지만, (나)에는 자원 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A]에는 독도의 자원 가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11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우주는 독도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가운데-2’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글쓴이는 ㉠이 ‘독도의 가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삭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2 이 글의 목적은 독도의 지리와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경상도의 위치 정보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적으므로 제공할 경우 오히려 글이 산만해질 수 있다.

2

단어는 나누어 보고, 매체는 건주어 보고



품사의 종류와 특성

활동

054~071쪽

- 058쪽 1 낙엽, 희망
059쪽 2 뒷산, 여기
3 돌
060쪽 4 낮다, 그것, 주어
061쪽 1 갔다, 작다, 하얗다
062쪽 1 빨갈게, 맛있는
064쪽 1 구체적
065쪽 1 그, 과연
2 설마, 무슨
067쪽 1 앓, 아, 그래
068쪽 1 바람, 아무, 좋아
069쪽 2 맑고, 모든, 우아
070쪽 1 알맞은
071쪽 3 생동감, 감정

학습목

054~071쪽

- 057쪽 2 형태, 의미
060쪽 1 수량, 체언, 목적어
063쪽 2 움직임, 서술, 가변어
065쪽 3 체언, 체언, 용언, 불변어
067쪽 4 문법적, 이다, 대답, 독립적
071쪽 1 명령형, 이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54~071쪽

- 054쪽 01 품사
055쪽 02 ④ 03 ①
056쪽 04 ③ 05 ① 06 ③
057쪽 07 ③ 08 ② 09 ㉠: 형태, ㉡: 주어
058쪽 10 ① 11 ② 12 ④
059쪽 13 ③ 14 저것, 여기 15 ⑤
060쪽 16 ⑤ 17 ⑤ 18 ②
061쪽 19 ② 20 ④ 21 뛰어들다
062쪽 22 활용 23 ⑤ 24 ②
063쪽 25 ④ 26 ⑤ 27 ④
064쪽 28 ⑤ 29 ① 30 ③
065쪽 31 ① 32 ⑤ 33 ③
066쪽 34 ② 35 ⑤ 36 ①
067쪽 37 ③ 38 ④ 39 ⑤

068쪽 40 ② 41 ④

069쪽 42 관형사 43 ①

070쪽 44 ② 45 ⑤

071쪽 46 부사 47 ⑤ 48 ⑤

01 품사는 형태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뉘며,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로 나눌 수 있다.

02 '신비한'은 '신비하다'를 활용한 형태로, 이 문장에서 '아침'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는 형용사이다.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는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안개'는 지표면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부엌에 떠 있는 현상을, '강변'은 강의 가장자리에 잇달아 있는 땅을, '아침'은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까지의 동안을, '느낌'은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기운이나 감정을 나타낸다.

03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는 명사이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오답풀이 ② '숙제를 빨리 끝냈다.'에서 부사 '빨리'가 동사 '끝냈다'를 꾸며 주는 것처럼 부사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③ '숙제를 빨리 끝냈다.'에서 부사 '빨리'를 삭제해도 숙제를 끝마쳤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유지되는 것처럼, 부사는 문장에서 생략해도 기본적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④ 어떤 일을 서둘러서 빨리하거나 무언가를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휘릭'이나 소가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 '음메'처럼 일부 부사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⑤ '과연 너는 착한 사람이구나.'에서 '과연'은 '너는 착한 사람이구나'라는 문장 전체를 꾸밈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강조해 준다. 또한 '너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에서 부사 '정말'은 부사 '빨리'를 꾸밈으로써 '빨리'의 정도를 나타내 준다.

04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나 그 말의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가리킨다. '바다', '매우', '푸르다'는 모두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므로 단어로 해당한다. 조사 '가'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앞말의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단어로 구분한다.

05 우리말의 단어는 형태가 변하는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의미 특성이 있는가에 따라 9개의 품사로 분류된다.

06 '푸르다'는 '푸르고, 푸르니, 푸르러서'와 같이, '열었다'는 '열고, 여니, 열어서'와 같이 문장에서 쓰이는 위치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07 단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바다, 학교, 필

통'은 체언에 속하는 명사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독립언이다.

②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수식언이다.

④ 문장에서 단어들 간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은 관계언이다.

⑤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용언이다.

08 '귀엽다, 멋지다, 푸르다, 아름답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이고, '달리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이다.

09 '동생'과 '필통'은 모두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한다.

10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②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은 '행복'밖에 없다.

③, ④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 중에는 위치나 방향,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없다.

⑤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은 대명사이다.

11 명사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로 나눌 수 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을 뜻하는 말로,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12 '친구'는 구체적 모습을 갖춘 대상을 나타내지만, '사랑'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⑤ '책'과 '자동차', '고양이'와 '학교'는 모두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대상을 나타낸다.

②, ③ '평화'와 '기쁨', '믿음'과 '용기'는 모두 일정한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13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명사이다.

② 대명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④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수식언이다. 대명사는 문장에 쓰일 때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체언에 해당한다.

⑤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용언이다.

14 '저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로, <보기>에서는 뒤이어 나오는 '술방울'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로, <보기>에서는 앞에 나온 '뒷산'을 가리키고 있다.

15 '둘', '열여덟', '셋', '하나'는 모두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지만,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16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한다. 다른 낱말을 꾸며 줌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은 수식언이다.

17 '어이쿠'는 사람의 느낌,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다른 말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독립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그것'은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② '셋'은 '둘에 하나를 더한 수'를 뜻하는 수사이다.

③ '컴퓨터'는 '전자 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를 뜻하는 말로 명사에 해당한다.

④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로, 명사에 해당한다.

18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으로,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ㄱ).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ㄷ).

오답 풀이 ㄴ. 단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은 조사(관계언)이다.

ㄷ.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관형사나 부사(수식언)이다.

19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이다. '샀다'의 기본형은 '사다'로,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차기웠다'의 기본형은 '차갑다'로, 촉감이 서늘하고 썩찬 느낌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③ '한적한'의 기본형은 '한적하다'로, 한가하고 고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④ '맛있게'의 기본형은 '맛있다'로, 음식의 맛이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⑤ '작았다'의 기본형은 '작다'로,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20 '빨간'의 기본형은 '빨갳다'로, 피나 익은 고추와 같이 밝고 짙게 붉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21 '뛰어들어'의 기본형은 '뛰어들다'로, 어떤 일이나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하얀'의 기본형은 '하얗다'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22 용언은 '먹다, 먹고, 먹으니',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와 같이 문장에 쓰일 때 위치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먹-', '예쁘-'와 같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이면 '먹다', '예쁘다'와 같이 용언의 기본형이 된다.

23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에 속한다. 이 단어들을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면,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가다, 뛰다, 먹다, 쉬다'는 동사, '작다, 맛있다, 빨갳다, 차갑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품사끼리 적절하게 묶은 것은 ⑤이다.

- 24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독립언(감탄사)이다. 용언은 ‘차가워!’와 같이 단독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물이) 차가워!’와 같이 주어와 생략된 것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⑤ 용언에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인 동사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인 형용사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③, ④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먹다, 먹고, 먹으니’와 같이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데, ‘먹-’과 같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과 ‘-다, -고, -으니’와 같이 형태가 변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 25 동사 ‘웃다’는 ‘웃는다’와 같이 현재를 나타내는 ‘-는다’와의 결합이 자연스럽지만 형용사 ‘젊다’를 ‘젊는다’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동사와 형용사 모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여서 기본형을 만든다.

② 형용사와 달리 동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는다/-다’와 결합하여 현재를 나타낸다. 기본형으로 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③ 형용사 ‘젊다’를 ‘젊자’와 같이 청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동사 ‘웃다’는 ‘웃자’와 같이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동사 ‘웃다’는 ‘웃어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형용사 ‘젊다’를 ‘젊어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 26 ‘깨끗하다’는 ‘때나 찌꺼기 따위가 없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자’와 같은 청유형, ‘-아라/-어라’와 같은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

- 27 ‘조용하자’는 기본형 ‘조용하다’에 ‘-자’를 붙여 청유형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조용하자’로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조용히 하자’가 올바른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보자’는 동사 ‘보다’의 어간 ‘보-’에 청유를 나타내는 ‘-자’가 결합한 것으로 활용이 적절하다.

② ‘먹어라’는 동사 ‘먹다’의 ‘먹-’에 명령을 나타내는 ‘-어라’가 결합한 것으로 활용이 적절하다.

③ ‘시원한’은 형용사 ‘시원하다’의 어간 ‘시원하-’에 ‘-니’가 결합한 것으로 활용이 적절하다.

⑤ ‘기쁘겠다’는 형용사 ‘기쁘다’의 어간 ‘기쁘-’에 ‘-겠-’이 결합하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활용이 적절하다.

- 28 ‘자동차가 달린다.’라는 문장에 관형사 ‘온갖’과 부사 ‘쌩쌩’이 추가되면서, 여러 종류의 자동차가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29 ‘그’는 관형사로 명사 ‘가게’를 꾸며 준다. ‘아주’는 부사로 부사 ‘많이’를 꾸며 주고, 부사 ‘많이’는 형용사 ‘있었다’를 꾸며 준다. 따라서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은 ④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③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는 것은 체언이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용언이다.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수

식언에 해당한다.

④ ‘애’, ‘오!’처럼 감탄사는 혼자서 문장을 이룰 수 있지만, 관형사나 부사는 혼자서 문장을 이룰 수 없다.

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명사에 해당한다. 명사는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 30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며 때에 따라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 31 ‘옛’은 ‘지나간 때의’를 뜻하는 관형사이다. 그러나 ‘몹시’는 ‘더할 수 없이 심하게’를 뜻하는 부사, ‘아주’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로’를 뜻하는 부사, ‘설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을 뜻하는 부사, ‘다’는 ‘남거나 빠진 것이 없이 모두’를 뜻하는 부사이다.

- 32 ‘과연’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를 뜻하는 부사로,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헌’은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을 뜻하는 관형사로, 체언 ‘옷’을 꾸며 준다.

② ‘두’는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체언 ‘사람’을 꾸며 준다.

③ ‘일찍’은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를 뜻하는 부사로, 동사 ‘일어났다’를 꾸며 준다.

④ ‘아주’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를 뜻하는 부사로, 부사 ‘많이’를 꾸며 준다.

- 33 ‘민혜는 새 옷을 백화점에서 잔뜩 샀다.’에서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을 뜻하는 관형사이고, ‘잔뜩’은 ‘한도에 이를 때까지 가득’을 뜻하는 부사이다.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가 모두 쓰인 문장으로 ③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그녀는 항상 웃는다.’에는 ‘언제나 변함없이’를 뜻하는 부사 ‘항상’이 쓰이기는 했지만, 관형사는 쓰이지 않았다.

②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있다.’에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관형사 ‘그’가 쓰이기는 했지만, 부사는 쓰이지 않았다.

④ ‘영서는 동생과 할머니 댁에 방문하였다.’에는 관형사와 부사 모두 쓰이지 않았다.

⑤ ‘나는 헌 옷을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에는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을 뜻하는 관형사 ‘헌’이 쓰이기는 했지만, 부사는 쓰이지 않았다.

- 34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지만 부사나 용언에도 붙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조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 35 ⑥ ‘데려다 주었다’는 동사 ‘데려다주다’를 과거형으로 활용한 것일 뿐 조사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친구’가 문장의 주체, 즉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② ‘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③ ‘로’는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④ '를'은 '나'가 서술어의 대상, 즉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36 조사 '는'은 다른 대상과 대조하거나 화제나 주제를 이끌어 내는 데 쓰인다. '떡볶이는 좋아한다.'는 떡볶이는 좋아하지만 다른 음식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는'은 대조의 의미를 더해 준다.

오답 풀이 ②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역시/또한'의 의미를 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유일/단독'의 의미를 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까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추가/확장'의 의미를 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제한'의 의미를 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37 감탄사는 다른 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문장의 처음, 가운데, 끝 어디에나 올 수 있다.

- 38 '일찍'은 부사로 동사 '일어나(일어나다)'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아차'는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쓰는 감탄사이다.

② '여보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르거나 사위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감탄사이다.

③ '그럼'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⑤ '이봐'는 듣는 이를 부를 때 쓰는 감탄사이다.

- 39 '아이고'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쓰는 감탄사로,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어이쿠'는 몹시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하는 감탄사로,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낸다.

② '야'는 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를 때 쓰는 감탄사로, 부름을 나타낸다.

③ '그래'는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로, 대답을 나타낸다.

④ '아차'는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쓰는 감탄사로,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낸다.

- 40 '좋아'는 '좋다'의 활용형으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 '술술'은 바람이 보드랍게 부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준다.

③ '바람'은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을 뜻하는 명사이다.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

④ '뽐았다'는 '뽐다'의 활용형으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⑤ '아름답구나'는 '아름답다'의 활용형으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41 형태가 변하는 품사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 '아름답구

나'는 '아름답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에 해당하며, ㉡ '불어 서'는 '불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부사이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42 주로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체언이다. 그리고 이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의 품사는 관형사로, 관형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용언도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 활용 형태로 체언을 꾸며 줄 수는 있지만, 형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43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관형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단어이다. <보기>의 문장에는 동사 '만드신(만들다)'이나 형용사 '맛있어(맛있다)',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열'과 '아홉'은 수사에 해당한다.

③ '아빠'의 '가', '요리'의 '의', '열'의 '에', '아홉'의 '은'은 조사에 해당한다.

④ '그럼'은 감탄사에 해당한다.

⑤ '우리'는 대명사에 해당한다.

- 44 '즐겁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즐겁게 보내세요'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오늘도'는 '오늘'에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로, 의미상 자연스럽고 문법적으로도 적절하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

③ '추석'은 '추석'에 격 조사 '을'이 붙은 형태로 문법적으로 적절하다. '추석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부터'가 붙은 형태이다. 따라서 '추석부터'로 고치면 '목적까지 일정한 시간이나 거리를 남겨 놓다.'라는 뜻의 '앞두다'와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게 되므로, '추석부터'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앞두다'를 '남보다 먼저 하거나 잘하려고 경쟁적으로 애쓰다.'라는 뜻의 '앞다투다'로 고치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게 된다.

⑤ '어르신들'을 '우리들의'로 고치면 대상이 바뀌면서 의미가 달라지므로, '우리들의'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5 '그쪽', '그지'와 같은 대명사는 앞의 내용이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명사를 사용할 때에는 의미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내가 그것을 샀다.'에서 '그것'은 목적어에 해당한다.

② 대명사를 사용하면 대상이 불분명해져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나 대명사를 사용하여 문장이 짧고 간결해지는 경우도 있다.

③ '그것은 빨갳다.'라는 문장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④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로, 대상의 이름을 알기 어렵게 된다.

- 46 '대롱대롱'은 작은 물건이 매달려 가볍게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총총'은 들어선 모양이 뾰뾰한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이

다.

47 의성어나 의태어는 소리나 모양, 움직임 등을 흉내 낸 단어이다. 문장에 이와 같은 부사를 사용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다.

48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어 감정이나 느낌을 풍부하게 표현한다.

- 오답풀이** ① 앞말에 뜻을 더해 줄 수 있는 것은 조사이다.
②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명사이다.
③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것은 동사, 상태를 서술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④ 문장 내 다른 말을 꾸며 줄 수 있는 것은 수식어인 관형사와 부사이다.

* 압축 파일

073쪽

- ① 형태 ② 이름 ③ 순서 ④ 부사 ⑤ 조사 ⑥ 부름
⑦ 움직임 ⑧ 성질

발전 활동

074~075쪽

- 074쪽 1 조사, 수사
075쪽 3 돼요, 으로서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74~075쪽

- 074쪽 01 ④ 02 ③
075쪽 03 ③ 04 ③ 05 ④

01 ㉠의 '모두'는 용언 '합하다'를 활용한 형태인 '합해도'를 꾸며 줌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는 부사(수식어)이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으므로 조사가 생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에서 '모두'에 조사가 붙은 이유는, ㉠의 '모두'가 명사로 쓰였기 때문이다.

02 ③에서 '노력한'이라는 말이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인 '만큼'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만큼'은 명사(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다. ①, ②, ④, ⑤에 쓰인 '만큼'은 모두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격 조사)로 쓰였다.

0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 하지만 ③의 '한그릇'은 관형사 '한'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그릇'을 붙여 써서,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한 그릇'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04 <보기>의 문장은 단어별로 '너 / 는 / 너 / 대로 / 연락 / 을 / 하고 / 나 / 는 / 집 / 에 / 도착하는 / 대로 / 전화 / 를 / 할게'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앞에 나오는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나 뒤에 나오는 '대로'는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에 나온 '대로'와 더불어 문장에 쓰인 조사 '는, 을, 에, 를'은 각각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너는 너대로 연락을 하고 나는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를 할게.'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05 ④의 '일곱 개'에서 '일곱'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인 '개'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므로 '일곱 개'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몇'은 뒤에 오는 말과 관련된 수를 물을 때 쓰는 말이므로, 일주일의 각 날을 이르는 말인 '요일'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나 대상, 물건 따위를 물을 때 쓰는 말인 '무슨'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한모금'에서 '한'은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이고, '모금'은 액체나 기체를 입안에 한 번 머금은 분량을 세는 단위이므로, '한모금'으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되요'는 어간 '되-'에 어미 '-어요'가 붙은 것이므로, '되어요'로 쓰거나 줄여서 '돼요'로 써야 한다. 따라서 '되요'를 '돼요'로 고친 것이 적절하다.

⑤ '으로서'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문맥상 '으로써'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시된 문장은 도서부 부원의 자격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으로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76~077쪽

- 01 ③ 02 ② 03 ① 04 ② 05 ③ 06 ②
07 ④ 08 ① 09 ④ 10 ③ 11 ① 12 ③
13 ②

01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품사를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단어는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 품사로 나눌 수 있다.

②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뜻한다.

④ 단어가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⑤ 일반적으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이 비슷하다.

02 ‘바다’와 ‘뽕’은 명사이고, ‘매우’는 부사이다. 명사와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반면에 ‘푸르다’와 ‘맛있다’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푸르고, 푸르러, 푸르니’, ‘맛있는, 맛있어, 맛있고’처럼 문장에 쓰이는 위치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03 문장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관계언’이고,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에게, 으로, 도’는 모두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② ‘바람, 책상, 연필’은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단어들로, 체언에 해당한다.

③ ‘무척, 매우, 조금’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④ ‘아야, 어이쿠, 와’는 다른 말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들로, 독립언에 해당한다.

⑤ ‘가다, 먹다, 푸르다’는 문장에서 주체나 대상을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로, 용언에 해당한다.

04 ‘크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는 뜻의 형용사이고, ‘예쁘다’는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따라서 같은 품사끼리 적절히 짝 지은 것은 ②이다.

오답 풀이 ① ‘동생’은 명사, ‘빨리’는 부사이다.

③ ‘이것’은 대명사, ‘어이쿠’는 감탄사이다.

④ ‘가다’는 동사, ‘지하철’은 명사이다.

⑤ ‘어머니’는 감탄사, ‘첫째’는 수사이다.

05 ‘자유, 추억, 희망’은 모두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낙엽, 돼지’는 구체 명사, ‘행복’은 추상 명사에 해당한다.

② ‘오이’는 구체 명사, ‘평화, 사랑’은 추상 명사에 해당한다.

④ ‘평등, 민주주의’는 추상 명사이고, ‘축구공’은 구체 명사에 해당한다.

⑤ ‘소망’은 추상 명사이고, ‘설악산, 바위’는 구체 명사에 해당한다.

06 ① ‘저쪽’은 ‘카페가 있는 곳’, ㉠ ‘그저’는 ‘바닐라라떼’, ㉡ ‘우리’는 ‘말하는 이 자신과 듣는 이’, ㉢ ‘거기’는 윤서가 어제 친구랑 갔던 ‘카페’를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어제’는 ‘오늘의 바로 하루 전에’라는 의미로 동사 ‘갔었어(가다)’를 꾸며 주는 부사에 해당한다.

07 ‘기쁘자’는 형용사 ‘기쁘다’의 어간 ‘기쁘-’에 청유형 어미 ‘-자’를 붙인 형태이다. 그러나 형용사는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여 쓸 수 없기 때문에 ‘기쁘자’는 용언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웃는다’는 동사 ‘웃다’의 어간 ‘웃-’에 현재형 어미 ‘-

는다’가 붙은 형태로, 활용이 적절하다.

② ‘입자’는 동사 ‘입다’의 어간 ‘입-’에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은 형태로, 활용이 적절하다.

③ ‘쉬자’는 동사 ‘쉬다’의 어간 ‘쉬-’에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은 형태로, 활용이 적절하다.

⑤ ‘입어라’는 동사 ‘입다’의 어간 ‘입-’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붙은 형태로, 활용이 적절하다.

08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수사이고,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수사와 형용사가 모두 포함된 속담은 수사 ‘하나’와 형용사 ‘미운(밉다)’이 쓰인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이다.

오답 풀이 ②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른다’에는 수사 ‘셋’이 쓰였지만 형용사는 쓰이지 않았다.

③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에는 형용사 ‘싫으면(싫다)’이 쓰였지만 수사는 쓰이지 않았다.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에는 형용사 ‘고와야(곱다)’가 쓰였지만 수사는 쓰이지 않았다.

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에는 형용사 ‘없다’가 쓰였지만 수사는 쓰이지 않았다. ‘열 손가락’에서 ‘열’은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이다.

09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민다. ㉠의 ‘몹시’는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 ‘그리웠다’를 꾸민다.

10 ③에서 조사는 ‘가’, ‘에게’, ‘을’ 3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조사가 2개 쓰였다. ①에서는 ‘가’, ‘을’, ②에서는 ‘는’, ‘도’, ④에서는 ‘으로’, ‘도’, ⑤에서는 ‘에서’, ‘가’가 조사에 해당한다.

11 ①에서 ‘애’는 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를 때 쓰는 감탄사로, 부름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② ‘그래’는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로, 대답을 나타낸다.

③ ‘아차’는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쓰는 감탄사로,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낸다.

④ ‘어머나’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쓰는 감탄사로,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낸다.

⑤ ‘아이고’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쓰는 감탄사로,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낸다.

12 ‘빠짐없이’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있게’를 뜻하는 부사로, 동사 ‘오면(오다)’를 꾸며 준다.

오답 풀이 ①, ② ‘모든’은 명사 ‘학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④ ‘오면’은 기본형 ‘오다’의 어간 ‘오-’에 어미 ‘-면’이 붙은 것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⑤ ‘출발합니다’는 ‘출발하다’의 어간 ‘출발하-’에 어미 ‘-습니다’가 붙은 것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13 ‘새롭다’는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형용사)에 해당한다.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비교

활동

078~085쪽

- 079쪽 2 라디오, 상호 작용
- 082쪽 1 전문적, 공유
- 083쪽 1 전문성
- 2 책임
- 084쪽 1 영향력

학습목

078~085쪽

- 079쪽 ① 대량, 온라인
- 083쪽 ① 일방적, 개인, 쌍방향
- 085쪽 ① 대중, 관심
- ② 사실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78~085쪽

- 078쪽 01 대중 매체 02 ③ 03 ②
- 079쪽 04 ④ 05 ⑤ 06 ②
- 080쪽 07 ③ 08 자막
- 081쪽 09 ②
- 082쪽 10 ⑤ 11 ②
- 083쪽 12 ① 13 불특정 14 나, 다
- 084쪽 15 ⑤ 16 ③
- 085쪽 17 ③ 18 ④ 19 생산자

- 01 책이나 신문(인쇄 매체), 라디오(음성 매체), 텔레비전(영상 매체)과 같이 수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대중 매체라고 한다.
- 02 라디오는 소리와 음성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음성 매체에 해당한다.
- 03 기존의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는 그대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로도 기사나 뉴스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의 발달로 대중 매체의 종류가 줄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㉔에는 영상 매체인 텔레비전, ㉕에는 음성 매체인 라디오, ㉖에는 인쇄 매체인 신문이 등장한다. 이 매체들은 모두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나)하는 대중 매체에 해당한다(ㄱ). 대중 매체는 주로 대중이 알 필요가 있는 뉴스나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달한다(ㄴ).

오답 풀이 다. 시청자가 원하는 때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징이며, 대중 매체는 정해진 시간에 정보를 전달한다.

- 05 ㉔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실시간 채팅, 댓글 등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06 ㉔의 민서가 이용한 매체는 1인 방송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텔레비전은 영상 매체, 신문과 관광지 안내 책자는 인쇄 매체, 라디오는 음성 매체로 모두 대중 매체에 해당한다.
- 07 텔레비전 방송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기획 및 제작을 하고 편집을 통해 완성된 콘텐츠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㉔의 '촬영 전' 장면을 통해 전문 촬영 장비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㉔의 '촬영 전' 장면에서 연출·촬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촬영 중' 장면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를, '방송국 편집실' 장면에서는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텔레비전 방송은 다양한 인력의 협력을 통해 방송을 제작한다.

④ ㉔의 '방송국 편집실' 장면에서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막으로 보충 설명을 넣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㉔의 '방송 시청' 장면에서 시청자가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08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고 참고할 수 있도록 대사나 설명을 입력한 글자를 화면에 보여 주기도 하는데, 이를 '자막'이라고 한다. ㉔의 방송국 편집실에서 편집자가 한 말을 통해 김치와 관련된 중요한 설명을 자막으로 보여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 09 개인 인터넷 방송은 누구나 쉽게 방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자가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방송 주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방송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㉔에서 제작자가 시청자가 남긴 댓글에 답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㉔의 세 번째 장면에서 제작자가 "오늘은 여행 소개 방송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평소 여행을 주제로 방송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한 채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㉔의 첫 번째 장면에서 제작자가 "오늘은 여유가 생겨서 평일이지만 방송을 해 보려고 해요."라고 말한 것에서, ㉔의 제작자는 주로 주말에 방송을 하였지만 임의로 평일에 방송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제작자가 마음대로 방송 시간을 조절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㉔에서 제작자가 방송을 기획하고 촬영할 뿐만 아니라, 방송을 진행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을 마치고 편집본에 자막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체로 한 사람이 촬영, 기획, 편집 등의 과정을 모두 담당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10 ㉔는 일반적으로 방송을 제작할 때 1인이 기획, 촬영, 편집 등의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㉕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방송을 제작한다.
- 11 대중 매체(㉔)는 대체로 생산자가 미리 제작한 정보를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㉕)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방송 중에 댓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 12 대중 매체는 방송국, 신문사, 언론 기관 등의 전문 조직에서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제작에 참여하기 어렵다.
- 13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을 내보냈을 경우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니는 책임이 크다.
- 14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로 1인이 기획, 촬영, 편집을 모두 담당한다(ㄴ). 또한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 매체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ㄷ).
- 15 개인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는 대체로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 취향에 따라 방송을 검색하여 시청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채널을 저장해 두었다가 시청한다.
- 오답 풀이** ①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의 특징이다.
② 댓글, 채팅으로 의견을 남기지 않아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③ 대부분 개인적인 흥미나 관심사에 따라 방송을 시청한다.
④ 전통적인 대중 매체의 수용자가 보이는 특징이다.
- 16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오답 풀이** ①, ②, ④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그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
⑤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한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공통된 의견과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매체는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17 한정된 매체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접하기 어려워 편향된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매체 이용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 18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을 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따라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 19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로 방송을 제작하는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해야 한다.

* 압축파일

087쪽

- ① 인터넷 ② 온라인 ③ 전문 ④ 일방적 ⑤ 쌍방향
⑥ 불특정 ⑦ 파장

발전 활동

088~089쪽

- 089쪽 1 실시간

학습목

088~089쪽

- 089쪽 ① 출처, 관점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88~089쪽

- 088쪽 01 ⑤ 02 ⑤
089쪽 03 ⑤ 04 ③

- 01 최신 국내 게임 산업 수출 현황과 같은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텔레비전 뉴스나 라디오 뉴스,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적절하다(㉔). 게임 이용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때는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찾아보는 것이 적절하다(㉕).
- 02 흥미롭거나 새로운 관점이 담겨 있다고 정보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03 라디오는 소리와 음성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음성 매체이다. 갈비찜을 요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은 텔레비전 방송, 개인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4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매체라고 하여 항상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체를 이용할 때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90~091쪽

- 01 ④ 02 영상 매체(텔레비전) 03 ③ 04 ② 05 ⑤
06 ③ 07 ①

01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가 등장하였다. 이때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에 접속해 뉴스 방송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대중 매체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02 **서술형**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는 주로 음성과 영상이 결합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텔레비전은 대중이 흔히 이용하는 매체인 만큼 이용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03 (나)는 대중 매체(텔레비전)에, (다)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해당한다. 전문가가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상으로 내보내는 방송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텔레비전은 전통적인 대중 매체 가운데 영상 매체에 해당한다.

② 대중 매체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거나 관심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④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스마트폰과 같은 간단한 촬영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자신이 관심이 있는 방송의 채널을 찾아가 생방송이나 사전에 제작된 영상을 시청해야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4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방송을 직접 검색하고 선택하여 시청하기 때문에 개인 인터넷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제공된다.

05 (가)에서 제작자 측은 이미 정해져 있는 촬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 제작자는 시청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다음 방송 때 부추김치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④ 사전에 기획되고 제작 일정이 정해지는 (가)는 다음 방송 내용을 변경하거나 방송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방송 제작자가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③ (가)는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나)는 실시간 댓글을 통해 시청자가 자신의 의견을 방송 제작자에게 전하고 있다.

06 ③의 대중 매체(신문)의 수용자는 먼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소식을 접한 뒤, 이를 돕기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 매체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다.

07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수처럼 재미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매체에 의존하는 대신, 다양한 매체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92~095쪽

01 ③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 명사, ㉡: 부사			08 ④	09 ②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④	15 ②	16 ③
17 ①	18 ⑤	19 ④	20 ⑤	21 ③	22 ⑤
23 ①	24 ⑤				

01 단어는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으며,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02 ㉠에서 '아주, 매우'는 부사, '현'은 관형사로 모두 수식언에 해당한다. ㉡에서 '책'은 명사, '너'는 대명사, '하나'는 수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에서 '먹다, 달리다'는 동사, '예쁘다'는 형용사로 모두 용언에 해당한다. ㉣에서 '는, 에게, 까지'는 모두 조사로 관계언에 해당한다. ㉤에서 '앗, 야, 그래'는 모두 감탄사로 독립언에 해당한다. 즉, ㉠~㉤은 기능에 따라 단어를 분류한 것이다.

03 수식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로,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에서 '빨리, 깨끗이'는 부사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미는 역할을 하며, '모든'은 관형사로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나, 누구, 우리'는 모두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② '책, 연필, 학생'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④ '높다, 슬프다'는 형용사, '만들다'는 동사이다. 형용사와 동사는 모두 용언에 해당한다.

⑤ '얼씨구, 어머니, 아이코'는 모두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독립언에 해당한다.

04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체언이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⑤에서 '여러'는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을 뜻하는 관형사로 명사 '사람'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하나'는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를 뜻하는 수사이다.

② '그'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③ '첫째'는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순위인 사람을 이르는 명사이다.

④ '셋째'는 순서가 세 번째 되는 차례를 뜻하는 수사이다.

05 '기쁨, 소원, 마음, 후회'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에 속하고, '벚꽃'은 일정한 형태를 지닌 구체 명사에 속한다.

- 06 관형사는 수식언에 속하며, 체언 앞에서 이를 꾸며 주는 품사이다. ⑤의 '새로운'은 '새롭다'의 관형사형으로, 체언 '기술'을 꾸며 주지만 품사는 형용사이다. 또한 '급격히'는 수식언에 속하지만 동사 '변화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풀이 ① '저런 색깔'에서 '저런'은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저러한'을 뜻하는 관형사로 체언 '색깔'을 꾸미고 있다.

② '그 요리'에서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로, 체언 '요리'를 꾸미고 있다. 또한 '온갖 정성'에서 '온갖'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를 뜻하는 관형사로, 체언 '정성'을 꾸미고 있다.

③ '그 그림'에서 '그'는 관형사로, '그림'을 꾸미고 있다.

④ '온 국민'에서 '온'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를 뜻하는 관형사로, 체언 '국민'을 꾸미고 있다.

- 07 **서술형** ㉠은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명사로 쓰여 조사 '는'과 결합하였다. 반면 ㉡은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게'라는 뜻의 부사로 쓰여 뒤에 오는 용언 '쫓아 있다'를 수식하고 있다.

- 08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현재형 어미 '-는다/-다', 청유형 어미 '-자',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와 결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형용사 '아름답다'의 어간 '아름답-'에 청유형 어미 '-자'를 결합한 형태로 활용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09 <보기>는 경찰이 '나'를 부르고 있는 단순한 사실을 나타낸다. 하지만 격 조사 '를'을 보조사 '만'으로 바꾸면 '경찰이 다른 사람은 부르지 않고, 나만 특별히 부른다.'는 뜻이 되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 10 ⑤에서 '천천히'는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를 뜻하는 말로, 동사 '먹다'를 활용한 형태인 '먹으며'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풀이 ① '아이고'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감탄사이다.

② '하얀'의 기본형은 '하얏다'로, 형용사를 활용한 것이다.

③ '상쾌했다(상쾌하다)'는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형용사이다.

④ '책'은 '종이를 여러 장 묶어 맨 물건'을 뜻하는 명사이다.

- 11 ④ '아,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에서 '아'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로,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오답풀이 ①, ② '예'와 '그래'는 모두 대답할 때 쓰이는 감탄사이다.

③ '야'는 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를 때 쓰이는 감탄사이다.

⑤ '여보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감탄사이다.

- 12 '아주 많이 있었다'에서 부사 '아주'는 부사 '많이'를, 부사 '많이'는 동사 '있다'의 활용형인 '있었다'를 꾸며 주고 있다.

- 13 '가만히'는 동사 '들여다보아도(들여다보다)'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 14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술술'은 뒤에 오는 용언 '불어서'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15 <보기>의 문장에서 부사는 '갑자기'와 '같이' 2개가 사용되었다. '갑자기'는 '내렸지만'을, '같이'는 '쓰고'를 꾸며 주고 있다.

- 16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리 문장에서 쓰일 때 '이니, 이고, 이며' 등으로 형태가 변한다.

- 17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용언이다.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활용을 하므로 활용 여부를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③, ④ 청유형 어미 '-자',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현재형 어미 '-는다/-다'와 결합하여 자연스러우면 동사, 어색하면 형용사이다.

⑤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할 때 움직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 18 (가)에는 텔레비전, (나)에는 라디오, (다)에는 신문이 나타나 있다. 이들 매체는 모두 대중 매체에 속하며,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반면 (라)에 나타난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매체이다.

- 19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는 대중의 관심사나 대중이 알아야 할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다수에게 전달하므로(ㄷ)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다(ㄱ). 또한 시청자가 그 시간에 맞춰 매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취향에 맞는 채널에 멈추어 그 방송을 시청하기도 한다(ㄴ).

- 20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가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주로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인터넷 기사나 뉴스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21 대중 매체는 기업의 광고로 수익이 결정되는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의 조회 수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22 (가)와 같은 텔레비전 방송은 연출가, 촬영 감독, 방송인 등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한다. 반면에 (나)와 같은 개인 인터넷 방송은 스마트폰과 같은 간단한 촬영 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

- 23 제9조와 제14조에 따르면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전하기 위한 철저한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24 흥미를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잘못된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콘텐츠를 이용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3 갈등을 딛고 크는 우리들



갈등하고 화해하고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98~099쪽

- 01 (1) × (2) ○ 02 인물, 사건, 배경 03 ② 04 갈등 05 ①
06 ㄱ-ㄱ-ㄷ-ㄷ-ㄴ

- 01 (1) 소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실제 존재하는 인물, 사회 현상 등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과 문학적 언어로 재구성한 허구의 이야기이다. (2) 작가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다. 즉, 소설은 현실을 모방한 허구이자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조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02 소설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것을 구성이라고 하며,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 03 작품 속에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므로 1인칭 시점이고,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 04 소설은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적 갈등을 겪거나 사회·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갈등을 겪는 과정을 담아낸다. 그리고 인물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05 우진이의 마음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생긴 갈등이므로 인물의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
- 06 ㄱ은 전개, ㄴ은 결말, ㄷ은 위기, ㄹ은 발단, ㅁ은 절정에 해당한다.

학습목

100~109쪽

- 101쪽 발단 소주제: 수탉
① 주인공
② 닭싸움
- 103쪽 전개 1 소주제: 감자
② 점순
③ 소작인, 마름
- 105쪽 전개 2 소주제: 닭
① 자존심
② 씨암탉
③ 사투리, 비속어
- 106쪽 위기 소주제: 고추장
② 닭싸움
- 108쪽 절정 소주제: 단매
① 발단, 현재, 현재
② 호드기
- 109쪽 결말 소주제: 점순
① 동백꽃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00~109쪽

- 100쪽 (1) ㉠ (2) ㉡ (3) ㉢
101쪽 (1) × (2) ○
103쪽 (1) 소작 (2) 지주
104쪽 (1) 서슬 (2) 열병거지
105쪽 (1) 꾀 (2) 거름
106쪽 (1) 하비고 (2) 감때사나운
109쪽 (1) ○ (2) × (3) ○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00~109쪽

- 100쪽 01 ① 02 ①
101쪽 03 ③ 04 ③ 05 감자
102쪽 06 ④ 07 ② 08 ①
103쪽 09 ③ 10 마름, 배재 11 ②
104쪽 12 ⑤ 13 ③ 14 ④
105쪽 15 고추장 16 ③ 17 ⑤
106쪽 18 닭싸움(닭쌈) 19 ④ 20 ③
107쪽 21 ③ 22 ⑤ 23 ①
108쪽 24 ③ 25 ① 26 여우 새끼 27 ④
109쪽 28 ② 29 ④

-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인 '나'가 직접 자신이 겪은 일과 그때의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이 글은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현재로 교차되고 있을 뿐, '나'의 시점에서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02 '나'는 자신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쪼이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이 다친 것처럼 화가 치밀었다.
- 03 점순이 "애! 너 혼자만 일하니?"라고 묻은 것은, '나'의 관심을 끌려고 말을 건 것일 뿐 '나'를 놀리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점순이 집을 살펴보다가 볼썽 '나'에게 감자를 건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점순이 '나'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평소 점순이 '나'를 본척만척했던 것과 다르게 "애! 너 혼자만 일하니?"라고 물으면서 말을 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인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있다.
④ 점순이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모습이나 제 집을 할금할금 돌아보다가 '나'에게 감자를 볼썽 건네는 모습으로 보아, 자신이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봐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를 전 감자 쪼깐만 하더라도……'라는 부분을 통해 '나'가 나홀로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나'가 자신에게 자꾸만 말을 거는 점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통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에서 무뚝뚝한 성격이 드러난다.
- 05 점순은 주변을 살피다가 자신이 가져온 '감자'를 '나'에게 건네준다. 이로 보아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의 호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06 '나'는 점순이 감자를 주면서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한 것을 점순이 생색을 낸 것이라 생각한다. '나'가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점순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나'는 ㉠과 같이 말한 것이다.
- 07 '나'는 분하면 자신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모질게 때리고 달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점순이 화가 나서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새빨개지며 쏘아보더니 눈에 눈물까지 어리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 08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라고 말한 것에 '점순'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는 것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넉살이 좋은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09 마름인 점순네 밑에서 농사 짓는 소작인인 자신의 집 처지로 미루어 볼 때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나'가 감자를 거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 말처럼 점순과 가까이 지내면 점순네가 노해서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게 될 것을 염려해서 점순을 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닭싸움을 '나'가 점순이 건넨 감자를 거절한 뒤의 일이다.
- 10 점순네 집은 '마름' 집안이고, '나'의 집은 마름에게서 '배제'를 얻어서 땅을 부치는 소작농이다. 즉, '마름'과 '배제'를 통해 두 집안의 관계를 알 수 있다.
- 11 점순은 자신의 호의가 담긴 감자를 '나'에게 건넸지만 '나'가 호의를 거부하자 자존심이 상한다. 이에 점순은 '나'의 닭을 괴롭히며 '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점순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방식으로 '나'의 관심을 끌려는 것으로 볼 때, '나'에게 실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의 닭을 미워한 것은 아니다. '나'의 닭을 괴롭힌 것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 ④ 이 글에서 '나'의 가족에 대한 점순의 감정이 나타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의 닭을 괴롭힌 것이지, '나'의 관심을 거부하려고 닭을 괴롭힌 것은 아니다.
- 12 소작농의 아들인 '나'는 마름의 딸인 점순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닭을 때리는 점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
- 13 점순이 '나'에게 감자를 건네주며 '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였지만, '나'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점순은 '닭'을 매개로 하여 '나'의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은 소작농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

② '나'가 처음에 점순이 호의로 건네준 감자를 거절한 것은 맞지만, 그 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은 점순이다.

④ 점순이 닭싸움을 좋아해서 괴롭혔다고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가 알뜰기도 하고, 이를 통해 '나'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⑤ 점순네 수탉이 '나'의 수탉보다 몸집도 크고, 또한 점순은 마름집 딸이므로 굳이 '나'에게 닭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14 ㉠은 점순이 '나'를 괴롭히는 일을 의미한다. 점순은 '나'의 닭을 괴롭히거나 '나'와 '나'의 가족을 욕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를 약 올렸지만, '나'를 바보라고 소문내고 다니지는 않았다.

15 '나'는 찜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는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16 찜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모습을 통해 '나'가 어리숙하고 순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나'가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닭을 이겨 보려고 한 것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점순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점순에게 분노를 느낄 뿐,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나'는 점순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 것이므로, '나'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체념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④ 고추장을 먹인 자신의 닭이 점순네 닭과 싸웠는데 '아무 보람이 없'으며 '한 번 쏘아 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고추장을 먹인 자신의 닭이 점순네 닭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와 달라서 아쉬워했음을 알 수 있다.

18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한 점순은 '나'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자기네 닭과 '나'의 닭이 싸우게 하였다. 이를 목격한 '나'가 점순네 닭을 이겨 보려고 반격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19 '입맛이 쓰다'는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못마땅할 때 쓰는 말이다.

20 점순은 '나'의 닭에게 지고 있던 자신의 닭이 이기자, '나'를 약 올리려는 듯이 깔깔 웃는다. 점순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나'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 '나'를 약 올리려고 점순이 일부러 닭싸움을 시켰다고 '나'가 생각하는 것으로 볼 때 '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점순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 놓고 한번 되게 후려치겠

다'고 생각하고 닭의 헛소리에 '약이 오를 대로 눈물이 펑 쏟아졌다.'라고 진술한 것에서 점순에 대한 '나'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라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점순이 일부터 '나'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내려왔다.'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나'가 나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닭이 점순네 닭에게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음을 알 수 있다.

22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씹을 붙여 났으니.....”라고 서술한 부분을 통해 '발단' 부분의 닭싸움 장면과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회상을 마치고 다시 현재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로서 일관되게 작품 전체를 서술하고 있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닭을 붙여 놓고 태연스럽게 호드기를 불고 있는 점순에게 분노가 치미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점순이 앉아 있는 곳을 묘사하고 있지만, '나'나 점순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23 '나'가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고 하고”라는 부분을 통해 점순에게 분노를 느낀 '나'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나'가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점순에게 빨리 복수를 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24 절정 3에서는 '나'가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면서 '나'와 점순의 갈등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25 '나'는 점순이 닭싸움을 붙이고 천연덕스럽게 호드기를 불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서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다. 이후 '나'는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소작인인 자신의 집이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26 '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점순이 그동안 자신이 알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라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7 점순이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한 뒤부터 '나'를 괴롭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은 앞으로는 자신의 호의를 '나'가 거절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28 '나'와 점순은 동백꽃 속으로 겹쳐서 쓰러지는데, 이때 점순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들키지 않기 위해 점순은 산 아래로 '나'는 산 위로 도망가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점순네 수탉을 죽이고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는 '나'에게 점순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나'를 안심시키고 있다.

③ 점순이 “그럼 너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라는 질문은 자신의 호의와 관심을 '나'가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질문이다. 이런 점순의 마음을 여전히 모른 채 '나'는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래.'라고 대답한 것이다.

④ 점순의 어머니가 점순을 찾는 말로 보아 점순은 바느질을 하다 말고 일부터 '나'가 내려오는 산기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는 점순과 포개지며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면서 아찔함을 느끼는데, 이는 '나' 역시 어렴풋이 점순을 이성적으로 느끼게 되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9 '동백꽃'은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111~113쪽

111쪽 1 자존심, 마름, 땅, 집

112쪽 2 어머니, 화, 무안

3 감자, 동백꽃

113쪽 5 상처, 갈등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11~113쪽

111쪽 01 ③ 02 ①

112쪽 03 ③ 04 ④ 05 감자

113쪽 06 ③ 07 ②

01 '나'가 속설을 믿고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모습을 통해 '나'의 어수룩한 성격을 알 수 있다. 또 점순이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점순의 당돌한 성격을 알 수 있다.

02 '나'는 눈치가 없고 어수룩한 인물로 점순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오답풀이 ② 점순은 '나'가 자신이 호의로 건네준 감자를 거절하자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눈물까지 어린 채로 도망간다. 그 이후로 '나'의 씨암탉을 괴롭히거나 자신의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움을 붙여 괴롭히고 있다.

③ 점순은 일부터 '나'가 오는 길목에서 자신의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우게 만든다. '나'의 수탉이 거의 죽을 지경인데도 천연덕스럽게 호드기만 불고 있는 점순의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나'는 결국 점순네 수탉을 단매로 때려죽이게 된다.

④ 점순이 '나'의 닭들을 괴롭혀도, '나'와 자신의 아버지를 옥해도 '나'는 점순에게 적극적으로 대들지 못한다. '나'는 마름인 점순네에게 땅과 집을 얻어 살고 있는 소작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⑤ '나'와 점순의 계층 차이 때문에 '나'의 어머니는 '나'가 점순과 어울리지 말라며 '나'에게 당부한다.

03 '나'는 자신에게 감자를 주며 호의를 베푸는 점순에게 관심이 없다가 점순이 닭싸움을 붙이고 천연덕스럽게 호드기를 불고 있는 모습에 분노해 점순네 닭을 죽인다. 이후 '나'는 소작하는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걱정하다가 점순이 닭을 죽인 일을 이르지 않겠다는 말에 안심한다.

- 04 '나'가 점순네 닭을 단매로 때려죽임으로써 '나'와 점순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 05 '나'에게 호감이 있는 점순이 조심스레 건넨 감자를 '나'가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나'와 점순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 06 점순의 행동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점순의 입장에서 '나'에게 감자를 준 일, '나'에게 감자를 거절한 일, '나'의 닭을 괴롭힌 일 등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나'에게 매몰차게 거절한 것을 속상해할 점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③이 점순의 행동에 공감하며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07 나- 점순이 "너 일하기 좋니?"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으로 "괜찮아. 걱정해 줘서 고마워."와 같이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 **입학필**

115쪽

- ① 나흘 ② 고추장 ③ 현재 ④ 동백꽃 ⑤ 감자
⑥ 자존심 ⑦ 웃음

발전 활동

116~118쪽

- 118쪽 1 과거, 적자, 제도

학습목

116~118쪽

- 117쪽 ① 입신양명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16~118쪽

- 116쪽 01 ⑤ 02 ② 03 출생이 천해 04 ④
117쪽 05 ③ 06 ⑤ 07 ㉠: 소인, ㉡: 대감
118쪽 08 ② 09 ⑤ 10 열자

- 01 이 글은 전지적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홍길동전」은 조선 시대의 문장가 허균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②, ④ 조선 시대의 신분 차별 제도를 소재로 하여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작품은 홍길동이 뛰어난 능력으로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고 울도국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영웅 소설로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02 '공은 길동을 더욱 귀여워하면서도'를 통해 아버지가 길동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길동은 열자, 즉 천한 출생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

- 04 길동은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 낮으면 출세를 하지 못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 05 홍 판서가 차별로 인한 서러움을 토로하는 길동을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도리어 크게 꾸짖은 것은 그 마음을 위로하면 방자해질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 06 길동은 차별로 인한 서러움을 홍 판서에게 토로한다. 하지만 홍 판서가 오히려 길동을 꾸짖자 길동은 결국 집을 떠나려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길동은 장길산이 천한 출생이지만 어머니와 이별하고 도를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 후일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길동이 입신양명에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네가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라는 홍 판서의 말에서 홍 판서가 신분 차별이 있는 사회 제도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근래에 곡산댁의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길동의 말에서 곡산댁이 길동과 그의 어머니를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재상 집안에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머니의 간장을 태우느냐?"라는 어머니의 말에서 길동의 어머니가 열자로서 차별받는 현실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길동은 열자이기 때문에 홍 판서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소자가 아닌 '소인'으로 지칭한다.

- 08 길동은 '열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입신양명이나 호부호형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길동의 이상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09 「홍길동전」이 조선 시대의 신분제 사회를 배경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길동이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것이나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분적 한계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신분에 따른 제약과 차별이 길동이 갈등하는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10 조선 시대의 양반은 본부인 외에도 첩을 둘 수 있었고, 첩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신분에 차이가 있었다. 본부인의 자식은 적자, 첩의 신분이 양인일 경우 그 자식은 서자, 천인일 경우 그 자식은 열자로 구분하였다. 그중 '길동'은 열자에 해당한다.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④
07 ③	08 ①	09 '나'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것이다.			
10 ⑤	11 ③	12 ④	13 ②	14 ④	

- 01 소설은 주로 줄글 형식으로 표현되는 산문 문학이다. ②는 문학의 한 갈래인 '시'에 대한 설명이다.
- 02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③은 모든 것을 알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서술하는 '전지적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 03 감자는 '나'와 점순의 갈등을 일으키는 매개체로, '나'가 점순이 건넨 감자를 거절한 사건을 시작으로 점순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 04 '나'와 점순네 사이의 계층적 차이로 '나'가 점순을 멀리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나'가 점순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것은 아니다. '나'가 점순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으로 볼 때 점순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고 볼 수 없다.
- 05 점순의 말에 통명스럽게 대답하는 '나'의 말을 통해 '나'가 무뚝뚝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오늘도 또'라고 한 것에서 우리 수탉과 점순네 수탉이 싸운 일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면두를 쪼여 피가 흐르는 자신의 닭에 대한 측은함과 점순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다.
 ③ 평소 친하지 않는 '나'에게 와 자꾸 말을 거는 것으로 볼 때 점순이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나'는 점순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 06 이 글에서 비속어는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점순이 비속어를 사용하여 비난하는 대상인 '나'는 점순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며, '나'의 아버지 역시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07 '나'가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말을 믿고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거나 고추장을 덜 먹여서 닭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가 어리숙하고 순진함을 알 수 있다. 또 점순이 '나'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괴롭히는 것으로 볼 때 점순이 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점순은 '나'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닭싸움을 걸었다. 그러한 마음의 이면에는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다.
- 09 **서술형** '배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꾀.'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나'가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생각해 낸 꾀, 즉 '나'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것을 의미한다.

- 10 ㉔ '하릴없이'가 쓰인 문장은 문맥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닭에게 억지로 고추장 물을 먹였다는 뜻이므로, '하릴없이'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11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이다. 반면 (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를 모두 꿰뚫고 있다.
- 오답풀이** ① (가)의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고, 점순은 마름의 딸로 계층에 차이가 난다. (나)의 길동은 천민인 어머니에게서 난 얼자이고, 아버지 흥 판서는 양반이므로 신분 계급에 차이가 있다.
 ② (가)는 비속어, 사투리, 구어체 등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현대 소설이다. (나)는 주로 문어체가 드러나는 고전 소설이다.
 ④ (가)는 주인공인 '나'의 심리와 행동 묘사 및 점순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나)는 길동과 흥 판서의 대화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가)는 '나'와 점순 간의 갈등, 즉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나)는 길동이 천한 신분 때문에 출세의 길이 막힌 것에서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12 점순이 '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려고 나의 어깨를 짚은 채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가 '뒷에 떠다밀렸는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가 여전히 점순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㉔은 '나'가 자신의 집안이 소작농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해 주는 말로, 이 말을 들은 '나'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 내쫓길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게 된다.
 ②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③ 다음부터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냐는 점순의 물음에 '나'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한 후 점순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말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점순의 어머니는 점순을 찾다가 역정을 내고 있을 뿐, '나'와 점순이 같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 13 ㉔은 동백꽃 속에 파묻힌 '나'가 느낀 것으로, '나'와 점순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보여 준다.
- 14 ㉔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고 싶다는 뜻이므로,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친다는 뜻의 '입신양명'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① '개선장군'은 '어떤 일에 성공하여 의기양양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인사유명'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길이 남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대기만성'은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⑤ '자수성가'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이라는 의미이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활동

123~131쪽

- 123쪽 1 바보, 괴병
- 126쪽 1 온라인, 사회성, 신체적
- 129쪽 1 문제
2 경청
- 130쪽 4 한부모
- 131쪽 5 나

학습곡

123~131쪽

- 124쪽 ① 정신, 소문
- 126쪽 ① 상처, 인간관계, 삶
- 129쪽 ① 주어, 긍정적, 소통
- 130쪽 ② 차별적
- 131쪽 ③ 상대방, 차별적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23~131쪽

- 124쪽 (1) 비속어 (2) 위협 (3) 편견
- 126쪽 (1) 부정적 (2) 비하하다 (3) 영향
- 128쪽 (1) 헤아릴 (2) 제안 (3) 성찰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23~131쪽

- 123쪽 01 언어폭력 02 ④ 03 ⑤ 04 ②
- 124쪽 05 ② 06 ③
- 125쪽 07 범죄 08 ②
- 126쪽 09 ③ 10 온라인
- 127쪽 11 ② 12 ⑤ 13 ②
- 128쪽 14 명령, 제안 15 ⑤
- 129쪽 16 ② 17 ④ 18 ③
- 130쪽 19 ④ 20 ㉠: 손 모아 장갑 ㉡: 초보자, 새내기, 입문자
- 131쪽 21 ② 22 ③ 23 너

- 01 폭력적·공격적인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언어폭력’이라고 한다.

- 02 교실이 아닌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나’와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싸움이 발생했다.

오답 풀이 ① 찬우는 시험이 다가오면 몸이 아플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배가 아파서 시험을 망쳤다고 하였다.
 ② 찬우는 시험을 망친 것이 속상해서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온라인 대화로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다.
 ③ 찬우는 자신이 저번에 윤호에게 말실수했던 것이 생각 났지만 부끄러워서 사과하지 못하고 또 윤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야 말았다.
 ⑤ 찬우는 요즘 자꾸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게 된다고 하였다.

- 03 찬우와 친구들의 온라인 대화에는 성적과 별명을 언급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언어폭력이 나타나 있다.

- 04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들으면 불쾌,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인 기분이 들게 된다.

- 05 언어폭력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진심 어린 조언의 말은 상대방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므로 언어폭력과는 거리가 멀다.

- 06 친구와의 약속에 늦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맞지만 언어생활을 점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의 행위이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②, ⑤ 비속어는 장난처럼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
 ④ 별명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친구가 그 별명을 부르는 것을 싫어 한다면 부르지 말아야 한다.

- 07 ‘찬우’의 일기 속에 등장한 공익 광고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재미 삼아 한 말들도 언어폭력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자막을 통해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08 언어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을 뿐, 실제 신체에 흉터를 남긴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언어폭력은 말로 상대를 때리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긴다고 하였다.
 ③, ④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때 언어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이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문제를 겪었다고 하였다.
 ⑤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 09 언어폭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10 최근 온라인 대화방,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소통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언어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11 명령하듯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존중하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 12 <보기>는 친구가 학생회 활동이 바빠서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하며 위로해 주는 말을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할 수 있다.
- 13 ‘너’가 주어가 될 경우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므로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 14 명령조로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며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 15 찬우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을 뿐, 이를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 16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느껴져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대화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17 제안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며 말하는 것이므로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18 존중하는 표현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19 차별적 표현은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지만 사소해서 알아차리기 힘들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미세 먼지’에 빔되어 표현한 것이다.
- 20 ‘병어리 장갑’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므로 ‘손 모아 장갑’으로, ‘-린이’는 어린이를 차별하는 표현이므로 ‘초보자, 새내기, 입문자’ 등으로 바꾸어서 표현해야 한다.
- 21 상대방의 말에 수긍할 점이 있으면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전부 다 수긍할 필요는 없다.
- 22 누나는 동생을 존중하지 않고 짜증을 내며 말했기 때문에 동생은 누나의 대답에 속이 상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동생은 명령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했다.
 ② 동생은 ‘가 주면 안 될까?’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며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④ 누나는 동생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말하며 짜증을 내고 있다.
 ⑤ 누나는 ‘짱나’, ‘저리 가와 같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 23 ‘너’를 주어로 하여 말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거나 비난하기가 쉽다. 그리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한 뒤 개선할 때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투나 표정도 신경 써야 한다.

* 압축파일

133쪽

- ① 욕설 ② 차별 ③ 공격적 ④ 사회 ⑤ 주어
 ⑥ 부정적 ⑦ 부탁 ⑧ 언어

발전 활동

134~136쪽

- 136쪽 1 악플
 3 시험

학습목

134~136쪽

- 135쪽 ① 한국말, 차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34~136쪽

- 134쪽 01 ② 02 ⑤ 03 ④
 135쪽 04 ② 05 ③
 136쪽 06 ② 07 ② 08 익명성

- 01 영화나 드라마는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의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작품 밖의 해설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소설에서 3인칭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드라마의 대본이다.
 ③ 이 글에는 등장인물의 대사 외에 상황을 해설하는 지시문이나 괄호로 표시하여 인물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나타나 있다.
 ④ 드라마는 카메라로 촬영 후에 편집을 거쳐 방송을 내보내므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주기 어렵고, 무대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다.
 ⑤ 등장인물인 빛나라, 서우, 지혜의 대화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02 빛나라와 서우, 지혜는 방송 중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며 누리꾼들과 소통하고 있다.
- 03 서우는 댓글 창에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며 외국인을 차별하는 댓글이 올라오자 당황하는데, 친구인 빛나라마저 이에 동조하며 서우를 차별하는 발언을 하자 서우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 04 ‘너는 댓글 때문에 상처받아 왔잖아.’라는 지혜의 말을 통해 빛나라가 댓글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구독자는 3,731명에서 4,446명으로 늘어났다.
 ③ ‘처음부터 하기 싫다고 했어.’라는 서우의 말과 ‘시험 기간인데 네 부탁이니까 들어준 거야.’라는 지혜의 말을 통해 서우와 지혜가 방송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우리는 실시간 개인 방송 처음 하는데'라는 지혜의 말을 통해 서우와 지혜가 실시간 방송에 처음 출연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맛글로 우리에게 대해서 저렇게 안 좋게 말하는데 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라는 지혜의 말을 통해 빛나라가 누리꾼의 악성 댓글을 막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5 말다툼 후 지혜와 서우가 집을 나설 때 빛나라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위협적으로 말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빛나라는 '야, 그렇게 맛없게 먹으면 어떡해.', '그러다 내 개인 방송 구독자 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라며 지혜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다.

② 지혜는 악성 댓글을 막아 주지 않고 자신의 방송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며 빛나라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데, 이에 빛나라는 '그냥 방송이잖아. 왜 이렇게 예민해?'라며 지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빛나라는 '야, 맛있게 좀 먹어.'라며 친구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명령하듯이 강요하고 있다.

⑤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한다며 외국인을 차별하는 댓글을 보고 '아저도 서우 처음 만났을 때 한국말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해서 당황했잖아.'라고 동조하고, '왜 이렇게 예민해?', '야, 오늘 그렇게 심한 말도 없었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에서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

06 서우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과 이에 동조하는 빛나라의 말을 듣고 당황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누리꾼들은 외국인처럼 보이는 서우가 한국말을 잘한다며 차별적인 말을 하고 있고, 지혜에게도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서 보기 싫다며 막말을 하고 있다. 빛나라를 응원하거나 칭찬하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

③ 빛나라는 서우를 차별하는 누리꾼의 말에 호응하며 자기도 서우가 한국말을 잘해서 당황했다고 말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누리꾼들을 지적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편을 드는 잘못을 저질고 있다.

④ 지혜는 시험 기간에도 친구인 빛나라를 위해 개인 방송에 출연해 준 자기에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는 빛나라에게 실망하며 화를 내고 있다.

⑤ 빛나라는 방송을 종료한 후 친구들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방송만 걱정하며 친구들에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07 ㄱ은 서우를 차별하는 표현, ㄴ은 지혜를 비난하는 표현이므로 고쳐 써야 한다.

08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익명성이라고 한다.

01 (가)에서 찬우가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게 되어서'라고 쓴 것에서 의도하지 않은 말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④ 찬우는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

②, ⑤ (나)의 온라인 대화에서 세 사람은 모두 '쫄쫄, 나약하기는.', '피병이지?',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성적 좋거든?' 등과 같이 상대방을 비웃고 무시하는 등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다.

02 일기는 그날그날 자신이 겪은 일, 생각과 느낌 등을 솔직하게 쓴 글로, 다른 사람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은 아니다.

03 ㉠은 찬우가 윤호에게 한 말실수이다. (나)의 민선의 말로 보아 윤호가 지난 시험을 망쳤을 때 찬우가 윤호에게 바보라고 하며 빵점이라는 별명을 붙여 놀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04 ㉡에는 찬우가 친구들과 온라인 대화를 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05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말조심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말이 씨가 된다.'는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다.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이다.

06 (나)는 중학교 때 언어폭력을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의 다양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나'는 언어폭력과 관련된 공익 광고와 책을 보고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대화들을 떠올리며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나)에는 사회성과 언어 발달 문제, 정신적 고통 등 언어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④ (다)의 빛나라는 개인 방송의 댓글을 보고 지혜를 비난하며 '야, 그렇게 맛없게 먹으면 어떡해.', '네가 책임질 거야?'와 같이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⑤ (다)의 화면에서 누리꾼들은 빛나라의 친구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만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도 언어폭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7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되는 것은 언어 습관의 성찰과 관련이 있으며, (가)의 '나'가 공익 광고 영상과 책을 본 후 결심한 내용이다.

- 08 <보기>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혼자 방송을 하는 것은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빛나라'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39~141쪽

01 ⑤ 02 ④ 03 점순네는 마름이고 '나'의 집은 점순네에게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기 때문에 점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04 ④ 05 ④ 06 ③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①

- 1 소극적이고 어수룩한 '나'와 적극적이고 당돌한 '점순'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사건이 '현재 - 과거 - 현재'로 역순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삶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춘기 남녀의 순수하고 순박한 사랑의 감정을 그리고 있다.

④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성과 현장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웃음도 주고 있다.

- 02 점순은 '나'의 씨암탉의 불기짹, 즉 허벅다리 위의 양쪽으로 살이 불룩한 부분을 콕콕 쥐어박고 있다.

오답풀이 ①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실뽀하게 생겼으며 우리 수탉은 덩저리가 작다.

② 점순은 감자를 주며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③ 마름인 점순네 밑에서 소작하는 자신의 집 처지로 볼 때, '나'는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감자를 거절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또 씬을 붙여 났으니'를 통해 점순이 전에도 자신의 닭과 '나'의 닭에게 싸움을 붙인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서술형** '나'는 자신의 닭을 괴롭히는 점순네 닭을 때리려 하다가 그만두는데,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점순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나'의 집이 소작농이라서 마름인 점순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 04 ④의 '염려는 스러우나'에서 '나'가 점순이 자신의 집 닭을 꺼내어 닭싸움을 또 붙일 것에 대한 걱정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③ '나'가 점순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② '두 눈이 뚱그려졌다'에서 닭싸움 소리에 놀란 '나'의 심리를 외양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부리나케 내려왔다'에서 조급한 '나'의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05 '나'와 점순이 동백꽃 속으로 파묻힌 것은 '나'가 점순네 수탉을 죽인 일을 점순이 비밀로 해 주겠다고 하면서 두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06 (다)는 이 작품의 절정 부분으로, '나'가 점순의 닭을 단매로 때려죽임으로써 갈등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나'는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② (나)에서 닭싸움을 시켜 자신의 닭을 괴롭히는 '나'에 대한 분노가 '요년'이라는 비속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④ (다)의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점순에 대한 분함, 닭을 죽인 것에 대한 무안함, 마름인 점순네 닭을 죽인 일로 입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복합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⑤ (라)에서 '나'가 앞으로 점순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자 점순이 닭을 죽인 사실을 이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된다. 그리고 둘은 동백꽃 속에 파묻히는데, 이를 통해 '나'와 점순의 화해를 서정적,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다.

- 07 '나'는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어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점순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08 ㉠은 '나'가 점순이 또 닭싸움을 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즉 화가 치밀어서 흘린 것이고, ㉡은 '나'가 점순의 닭을 때려죽인 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감에 흘린 것이다.

- 09 언어폭력은 가상 세계, 즉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10 <보기>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 광고로, 네 번째 장면 속 메시지의 내용과 마지막 장면의 글을 통해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11 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어리장갑'이라는 차별적 표현이다. 따라서 '병어리장갑' 대신 '손 모아 장갑'이라고 바꿔 말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문 좀 달애'는 명령조로 상대방에게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③ '겹이 많아?'는 친구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④ 친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므로 친구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해야 한다.

⑤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4 문제를 풀어내는 즐거운 방법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44쪽

01 (1) × (2) × 02 사회자 03 ⑤

- 01 (1)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2) 발언 기회를 독점하여 자신의 의견만 말하는 것은 협력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토의에 임하는 적절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
- 02 <보기>는 토의 참여자 중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의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하며, 청중과 토의자 사이의 질의응답을 유도하는 등 토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 03 원탁 토의는 열 명 내외의 토의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 방식이다.

학습곡

145~151쪽

146쪽 소주제: 주제

① 보관함

147쪽 소주제: 의견

① 위치, 이름

② 설문, 결과

149쪽 소주제: 답변

① 통행, 팸말, 학용품

151쪽 소주제: 청중

② 폐기

소주제: 결과

① 요약

② 담당자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45~151쪽

145쪽 (1) 분실물 (2) 보관함

147쪽 (1) 금세 (2) 근본적

151쪽 (1) ○ (2) ×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45~151쪽

145쪽 01 ④ 02 학교 분실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 03 ⑤

146쪽 04 ④ 05 ⑤ 06 ④

147쪽 07 ㄷ, ㄴ 08 ④

148쪽 09 토의자들의 의견을 요약정리한다. 10 ⑤ 11 ①

149쪽 12 ④ 13 이름 스티커의 제작 목적을 강조한다. 14 ⑤

150쪽 15 ⑤ 16 ④ 17 ⑤

151쪽 18 ④ 19 ⑤

- 01 학생들은 학교 분실물 보관함이 꼭 찬데다 이름도 적히지 않은 분실물이 더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 02 학생들은 학교 분실물 보관함이 꼭 찰 정도로 분실물이 늘어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토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03 학생들은 다양한 토의 유형을 검색해 본 후, 분실물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자신들이 패널이 되고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이 청중으로 참여하는 패널 토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04 우주는 학교 분실물 보관함이 꼭 차 있는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토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 05 토의 사회자인 우주는 토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안내하면서,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있다.
- 06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을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기자고 제안하면서 현재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가 4층 복도 구석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1층 중앙 현관 복도가 등하교 시 학생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 07 준후는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보여 주면 더 쉽게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말하고 있다(ㄷ). 반면에 신비는 근본적으로 분실물의 수를 줄여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면서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말하고 있다(ㄴ).
- 08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쓰지 않는 학생이 49명이고, 이름을 꼭 쓰는 학생은 27명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③ 이름 스티커 제작에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 이름을 쓰지 않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지품을 분실하는 빈도, 학년별 자신의 소지품에 이름을 꼭 쓰는 학생들의 비율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이름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학생들은 24명이고, 이름을 꼭 쓰는 학생은 27명이다.
- 09 ㉠에서 우주는 앞서 토의자들이 제안한 분실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10 신비는 준후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여 준후의 답변을 비난함으로써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우주는 토의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환기하여 토의자들이 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11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을 옮길 때 보관함 속 물건들을 정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리 담당자를 정해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신비와 준후도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

오답풀이 ②, ③ 준후는 1층 중앙 현관 복도가 매우 혼잡하여 분실물 보관함을 그쪽으로 옮기면 학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 분실물 보관함을 옮기지 말자거나 분실물 보관함을 옮길 위치를 다시 찾자고 말하고 있지 않다. 신비 역시 분실물 보관함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다.

④, ⑤ 신비는 매달 열리는 '분실물 찾아 주는 날'마다 매번 같은 학생들만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을 뿐,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에 매번 참여하거나 그 캠페인을 매달 진행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다.

12 윤서는 준후의 의견을 공감하면서 캠페인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준후 의견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반박하거나 준후의 의견을 비판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분실물 찾아 주는 날'을 정해서 물건의 주인을 찾아 주는 행사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준후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② 캠페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생에게 상품을 주기보다 공로상을 주자고 말함으로써 준후의 의견을 보완하고 있다.

③ 준후에게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묻고 있다.

⑤ 윤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후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함으로써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13 준후는 이름 스티커를 나누어 주어도 붙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신비는 이름 스티커의 제작 목적을 강조한다면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름 스티커를 붙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4 신비의 제안에 대해 윤서는 학생들이 주로 분실하는 물품 중에는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운 물건이 많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신비가 당황하며 그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서 이름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고려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 청중인 시우와 주리는 각각 윤서와 신비의 의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다.

16 신비는 준후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②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해도 물건이 많이 줄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시우의 질문에, 분실물

을 정리하면서 폐기할 물건을 따로 빼 둘 생각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구체화하여 시우의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③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며 준후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⑤ 폐기할 분실물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대한 장점들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17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윤서는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겠다며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옮기자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실물을 정리하고 물건의 주인을 찾아 주는 것만으로도 분실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8 [A]에서 신비는 자신의 의견을 실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름표를 제작하여 붙이는 대신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할 때 이름을 남겨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19 신비가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자는 제안을 철회하는 대신에 캠페인을 하면서 자신의 소지품에 이름을 남기도록 강조하겠다고 하였지만, 학교 규칙으로 그것을 강제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활동

152~157쪽

- 152쪽 1 등하고, 조사, 글씨체
- 153쪽 1 노래, 학급, 자선 단체
- 155쪽 3 경청, 존중

학습목

152~157쪽

- 155쪽 ① 공동
- ③ 질의응답, 근거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52~157쪽

- 152쪽 01 ⑤ 02 ① 03 설문 조사
- 153쪽 04 ⑤ 05 L, C
- 154쪽 06 ② 07 청중 08 ⑤
- 155쪽 09 ③ 10 ⑤ 11 ⑤
- 156쪽 12 ① 13 ⑤
- 157쪽 14 ⑤ 15 ②

01 이 토의는 사회자인 우주가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한 후, 토의자들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에 토의자들 간 의견 교환과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의견을 조정

하였다. 끝으로 사회자는 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토의를 마무리하였다.

- 02 사회자인 우주는 토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교의 분실물, 어떻게 줄일까?’라는 토의 주제를 소개하였으며, 각 토의자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 03 신비는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고 제안하였다.
 - 04 <보기>는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답변이다. 따라서 <보기>는 준후의 의견에서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해도 물건이 줄어들지 않았을 때 분실물 보관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 05 이 토의 결과 학생들은 분실물 보관함을 옮기지 않는 대신에 담당자를 정하여 돌아가며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하고, 한 달에 한 번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ㄷ). 또한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ㄴ)로 결정하였다.
 - 06 토의자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의견을 조정하면서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다.
 - 07 청중은 질의응답 시간에 토의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토의자들의 발표를 집중해서 듣고 궁금한 점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 08 신비는 준후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비난하고 있을 뿐, 준후 의견을 조리 있게 반박하지는 않았다.
 - 09 토의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청중이 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청중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의견 교환 시간에 물어보아야 한다.
 ② 토의자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⑤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경청해야 한다.
- 10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 11 이 토의에 참여한 윤서, 준후, 신비는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이 처음에 제안했던 의견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12 <보기>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현재의 자리 배치 방식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리 배치 방식을 주제로 토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 13 토의 주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주제로 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의 나뉘는 주제이기 때문에 토의의 주제보다는 토론 주제로 적합하다.

- 14 <보기 2>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설문 조사를 하여 영양 선생님께 알려 주자는 의견이므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했을 때의 효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15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의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거나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를 확장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주제를 정하여 토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압축 파일

159쪽

- ① 캠페인 ② 스티커 ③ 질문 ④ 주제 ⑤ 근거
 ⑥ 청중 ⑦ 공동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60~161쪽

- 160쪽 01 ④ 02 반려 동물 유기 문제 03 ④
 161쪽 04 ⑤ 05 ③

- 01 카드 뉴스는 이미지와 간략한 글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학술적인 내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가)는 다양한 이유로 버려진 반려 동물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카드 뉴스에 담긴 사회적 문제는 반려 동물 유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03 (나)는 층간 소음 문제를 나타낸 카드 뉴스로, 층간 소음의 뜻을 정의하고 층간 소음 신고와 민원의 증가율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카드 뉴스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제시한 통계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4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따라서 토의 주제를 정할 때에는 토의할 가치가 있는 주제인지(ㄱ),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지(ㄷ)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든 토의를 하기 위해 주제를 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다(ㄴ).
- 오답 풀이** ㄷ. 찬성과 반대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주제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토론 주제에 대한 설명이다.
- 05 지진에 대비하는 것은 토의 주제인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방법과 거리가 멀다.

01 ③ 02 최근 우리 학교의 분실물 보관함이 짝 차다 못해 넘치고 있습니다. 03 ④ 04 ④ 05 ⑤ 06 ⑤

01 (가)에서 우주가 의견 발표 순서를 안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토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달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가)에서 우주가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순서를 안내한 것에서 우주가 사회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주의 소개를 통해 윤서, 준후, 신비가 패널로 토의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학교의 분실물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⑤ 윤서, 준후, 신비는 각자가 준비해 온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02 **서술형** (가)에서 우주는 최근에 학교의 분실물 보관함이 짝 차다 못해 넘칠 정도로 분실물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밝히고 있다.

03 신비는 소지품에 이름을 쓰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와 이름 스티커는 물이 묻어도 잘 떨어지지 않고 글씨를 잘못 쓰는 친구들도 글씨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자고 제안하였다.

04 시우는 윤서에게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해도 물건이 많이 줄어 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있다. 이는 윤서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윤서의 의견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우주는 “윤서 학생은 …… 제작을 제안했습니다.”라고 토의자들의 제안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있다.

② (라)에서 윤서는 시우의 질문에 좋은 지적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답변하고 있다.

③ (라)에서 윤서는 청중의 질문에 답하면서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고 있다.

⑤ (나)에서 신비는 준후에게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묻고 있다.

05 신비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흥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회자인 우주는 토의의 목적을 환기하면서 신비에게 주의를 준 것이다. 따라서 ㉠에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신비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6 ㉠은 주인을 찾아 주지 못한 분실물을 폐기할 것이라는 윤서의 의견을 듣고 준후가 추가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완함으로써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는 데에 도움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장하는 글 쓰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64쪽

01 (1) × (2) × 02 개요 03 ⑤

01 (1)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다. (2) 문제 상황과 글을 쓴 목적을 밝히는 것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2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개요를 작성한다.

03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활동

165~174쪽

- 165쪽 1 교통사고, 정신
2 시간, 신문
- 166쪽 1 가족, 손상
- 167쪽 1 악영향, 사회성, 보행
- 168쪽 1 장점, 사고, 인간관계, 전문가
- 169쪽 2 본론, 주장
- 173쪽 1 카페인
2 뇌
- 174쪽 3 성장, 학습

학습곡

165~174쪽

- 165쪽 ① 스마트폰, 목적, 매체
- 168쪽 ① 자료, 주장
- 169쪽 ② 서론
- 172쪽 ① 이유, 설득력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65~174쪽

- 165쪽 (1) 조절하다 (2) 투고하다
- 167쪽 (1) 만능 (2) 돌발
- 171쪽 (1) ○ (2) ○ (3) ×
- 172쪽 (1) 과다 (2) 간과하다
- 174쪽 (1) 중독 (2) 저하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65~174쪽

165쪽 01 ② 02 ④ 03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

166쪽 04 ③ 05 (다) 06 ②

167쪽 07 ③ 08 ②

168쪽 09 ③ 10 (나), (바) 11 ㄷ

169쪽 12 ⑤ 13 ③ 14 ④

170쪽 15 ④ 16 ④ 17 ㄱ, ㄷ

171쪽 18 이와 같이 19 ②

172쪽 20 ⑤ 21 ②

173쪽 22 ⑤ 23 ②

174쪽 24 ③ 25 ⑤

- 01 신비는 등갓길에 스마트폰만 보느라 교통사고가 날 뻔한 사람을, 하갓길에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또한 집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뉴스를 보았다.
- 02 주장하는 글은 주장이 논리적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할 때 설득력이 높아진다. 글쓴이의 나이는 글의 설득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 03 신비와 준후, 윤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담아서 글을 써 보자고 하였다.
- 04 자료를 수집할 때는 인터넷, 텔레비전,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넷은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으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 05 (가), (나), (라)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반면, (다)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 06 (라)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서 들은 정보로,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
- 07 (사)에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나타나 있지만, 청소년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8 (마)와 (바), (사)는 모두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이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마)~(바)를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09 (다)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10 (나)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바)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사회성이 발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료이다. 두 자료 모두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 있다.

- 11 ㄷ은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따라서 신비네 모둠이 글을 쓸 때 추가할 자료로 적합하다.

오답 풀이 ㄱ, ㄴ, ㄹ은 모두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비네 모둠이 추가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12 서론 부분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목적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독자가 문제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13 ㉠은 스마트폰을 대신할 건전한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유 2’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없다. 따라서 ㉠은 삭제해야 한다.

- 14 제시된 개요의 결론 부분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면 논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문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 15 ㉠은 스마트폰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기 때문에 주장의 방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보기>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글쓴이가 주장할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 16 윤서는 예상 독자가 또래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더 쉬운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 17 이 글은 서론 부분에서 독자의 일상적 경험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ㄷ). 또한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ㄱ).

오답 풀이 ㄴ.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부분은 결론이다. ㄹ.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은 본문이다.

- 18 주장하는 글의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으며, 다음 부분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한 번 더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19 ㉠은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여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은 객관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20 <보기>는 ‘아예 …… 생각한다’와 같이 단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21 주장하는 글에서는 화제와 관련한 하나의 통일된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화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드러나는가?’는 고쳐 쓰기를 위한 점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22 주장하는 글의 본론 부분에는 독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⑤는 문제 상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 23 뇌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높여 준다는 것은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줄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24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작성하는데, 구체적인 표현이나 단어의 사용을 점검하는 것은 글을 쓴 뒤 고쳐 쓰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25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을 밝힐 수는 있지만, 글쓴이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깨달은 바가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하는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 압축파일

- 1 문제 2 사용 3 근거 4 건강 5 중학생
6 사회성 7 주장 8 주관

176쪽

발전 활동

177~178쪽

178쪽 1 형제애, 피부색, 희망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77~178쪽

- 177쪽 01 ① 02 ⑤ 03 ②
178쪽 04 ③ 05 ①

- 01 이 연설자는 언젠가 흑인 소년·소녀들이 백인 소년·소녀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연설자는 흑인을 향한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02 ①은 미국의 건국 신조로, 연설자는 미국의 건국 신조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인종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 것이다.
- 03 ⑥는 흑인과 백인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인종 차별이 사라진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머지는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의미한다.
- 04 이 연설자는 건국 신조의 참뜻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미래(ㄱ), 흑인과 백인 소년·소녀들이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게 되는 미래(ㄴ) 등이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종과 상관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

- 05 이 연설자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와 같은 문장과 어휘를 반복하여 자신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79~180쪽

-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④

- 01 이 글의 글쓴이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는 있지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와 (라)에서 84퍼센트, 59.8퍼센트 등 조사 결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② (나)~(라)의 첫 문장에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표지를 활용하여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③ (가)는 서론으로 문제 상황을, (나)~(라)는 본론으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마)는 결론으로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가)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 02 (나)에서 거북 목 증후군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 등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나)에서 <보기>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03 이 글의 글쓴이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을 고친 것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보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④ ‘사회성’은 이 글의 주장에 대한 이유 중 하나이므로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스마트폰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으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⑤ 스마트폰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 글의 문제 상황이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04 ㉠은 “…… 좋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것이”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 05 이 글의 글쓴이는 여러 이유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스마트폰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보기>는 주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 같이 글쓴이가 <보기>를 평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06 이 연설자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연설자의 바람을 강조하고 있다(ㄱ). 또한 미국의 건국 신조를 근거로 제시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ㄴ).
- 07 이 연설자는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 ㉡, ㉢, ㉣은 모두 화자의 소망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 ㉤은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들끓는 곳으로,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의미한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81~183쪽

- 01 ㉠ 02 ㉡ 03 ㉢ 04 ㉣ 05 준후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끊고 발언하고 있다. / 목소리를 높여 위협적으로 말하고 있다. / 상대방의 의견을 비난하고 있다. 등 06 ㉡
- 07 ㉡ 08 ㉠ 09 ㉢ 10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 01 (가)를 통해 이 토의의 사회자는 우주이고, 토의자는 윤서, 준후, 신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토의는 패널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널 토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토의가 진행되며 청중은 ‘토의자와 청중 간의 질의응답’ 순서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바)에서 시우는 토의 순서와 관계없이 토의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토의는 윤서, 준후, 신비 세 명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한 후 청중의 질의에 응답하고 결정을 내리는 패널 토의이다.

- ② 사회자는 우주, 토의자는 윤서, 준후, 신비, 청중은 시우이다.
- ③ 교내 분실물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협력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 ⑤ (바)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부분이며, 청중은 토의자들이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02 준후는 학생들이 나서서 분실물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줄 수 있도록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을 뿐, 분실물 주인이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 03 (가)에서 우주는 “이에 따라 분실물 …… 토의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있다(ㄱ). 또한 (다)에서 우주는 “이 토의의 목적은 …… 발언은 삼가기를 말합니다.”라고 말하며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04 (바)에서 준후는 분실물을 정리하면서 폐기할 물건을 따로 빼둘 것이라는 윤서의 의견에 대하여 폐기할 물건 중 상태가 좋은 물건을 골라 자선 단체에 기부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의견은 윤서의 의견을 보완한 것일 뿐 화제를 전환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자선 단체에 기부하자는 준후의 의견에 신비는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④ ‘시우’는 보관함을 정리해도 분실물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며 윤서가 미처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질문하고 있으며, 윤서는 “네, 좋은 지적입니다.”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대답하고 있다.

- ③ 청중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윤서는 자신의 기존 의견을 철회하고 의견 일부를 조정하고 있다.

- 05 토의를 통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신비는 준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거나,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준후의 의견을 비난하는 등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 06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주장하는 글에 글쓴이의 감상을 담으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쓴이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글쓴이의 감상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것은 수필이다.

- 07 서론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환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서론인 1문단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예상 독자인 중학생을 언급하고,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다.

- ③ 3문단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 조사 결과를, 4문단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④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본문에서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08 본론의 셋째 이유 부분에서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하면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단답의 형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와 갈등도 잦아진다고 하였다.

- 09 ㉢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제목을 바꾸는 것이 좋다.

- ② ‘거북 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 등의 단어를 좀 더 쉽게 풀어 쓰는 것이 좋다.

- ④ ㉢의 앞부분은 ‘셋째’ 이유와 관련한 본론의 마지막 문단이고, ㉢의 뒷부분은 이 글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므로 두 문단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 ⑤ 주장하는 글에서는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 10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주장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주장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1 정보의 숲에서 길을 찾기



요약하며 읽기

간단+복습문제

03쪽

꼭지 시험	01 ㉠	02 ㉠	03 ㉠	04 ㉠	05 우주 먼지
	06 나라	07 객관적인 정보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궤도	02 배필	03 천체	04 백년해로	
	05 존귀	06 승천	07 ㉠	08 ㉠	09 ㉠
					10 ㉠

예상 점수 소단원 평가

04~05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④
08 ②						

01 (가)는 ‘처음’ 부분으로 독자의 경험을 묻으며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앞으로 제시할 내용을 밝히고 있을 뿐, 문제 상황이나 그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금부터 하늘에서 빛을 내며 떨어지는 신비로운 별뿔별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문장에서 앞으로 별뿔별에 대해 알아볼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② ‘깜깜한 밤, 잔디밭에 누워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뿔별’, ‘하늘에서 빛을 내며 떨어지는 신비로운 별뿔별’과 같이 별뿔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③ “그런데 별뿔별은 과연 무엇일까?”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 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뿔별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독자의 경험을 묻으며 글의 화제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2 (마)의 “혜성이나 소행성과 같은 천체가 저마다의 궤도를 그리며 지나가는 자리에는 천체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가 무리를 지어 똥똥 떠 있기도 한다.”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별뿔별은 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별뿔별이 떨어지는 속도가 총알보다도 빠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낮과 밤에 떨어지는 별뿔별의 속도를 비교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다)에서 별뿔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훨씬 밝기 때문에 낮에는 별뿔별을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라)에서 유성우는 일 년에 여러 차례 쏟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03 (다)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단서로 하여 평상시에 별뿔별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으므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상위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의 중심 문장은 “우리가 보는 별뿔별의 정체는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이다.”로 반복되는 내용이 없다.

④ (라)의 중심 문장은 “별뿔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流星雨)’라고 한다.”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정보로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마)에는 “우주 먼지가 모여 있는 …… 이끌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다.”라는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04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유성우 현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라)와 유성우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마)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옥황상제는 복주머니가 비어서 총각에게 줄 복이 없었다. 그래서 복을 주는 대신에 총각이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 준 것일 뿐, 직접 복을 준 것은 아니다.

06 옥황상제는 총각에게 이무기는 입안에 있는 여의주 세 개 중 두 개를 뱉어 내고 동자는 꽃밭에 있는 금덩이 세 개를 파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일러 주었다. 또한 처녀는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07 총각은 비록 옥황상제에게 직접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인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복을 얻게 된다. 즉, 이 글은 착하게 살면 그 마음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08 요약은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독자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독자의 주관적인 감상이나 경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약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06쪽

1단계 01 이렇게 별뿔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한다.

2단계 02 ㉠는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이고, ㉡는 세계 여러 나라이다.

3단계 03 (다), (라)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별뿔별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 떨어지는 별뿔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별뿔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하기도 했다.

1단계

01 (가)의 중심 내용은 유성우 현상의 개념이므로, 유성우를 정의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 써야 한다.

2단계

02 (다)는 별뿔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여

러 나라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례로 제시된 ‘우리나라, 일본, 칠레, 필리핀’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인 ‘세계 여러 나라’로 바꾸어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3단계

- 03 <보기>의 읽기 목적에 따라 이 글을 요약하면, 별풍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난 (다), (라)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다)에서는 별풍별을 긍정적으로, (라)에서는 별풍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평가 목표	읽기 목적에 따라 요약하기
채점 기준	✓ 요약할 때 활용한 문단과 요약한 내용을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20점] ✓ 요약할 때 활용한 문단과 요약한 내용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10점]

고득점 서술형문제

07쪽

1단계 01 풀머슴

2단계 02 ㉠: 꽃밭 깊숙이 박힌 금덩이 세 개를 파낼 것 ㉡: 입 안에 있는 세 개의 여의주 중 두 개를 뱉어 낼 것

3단계 03 처녀는 혼인 말만 오가면 신랑 될 사람이 병에 걸려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다. 총각은 처녀의 고만을 옥황상제에게 말했고, 처녀는 옥황상제의 말대로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총각과 결혼하였다.

1단계

- 01 (가)에서 총각은 삼 년이 지나도록 중머슴, 상머슴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풀머슴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2단계

- 02 옥황상제는 총각에게 동자는 꽃밭 깊숙이 있는 금덩이 세 개를 파내면 바로 국화꽃이 필 것이고, 이무기는 입 안에 있는 여의주 세 개 중 두 개를 뱉어 내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라며 해결책을 알려주었다.

3단계

- 03 <보기>의 읽기 목적에 따라 이 글을 요약하면 처녀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처녀는 자신이 왜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총각에게 부탁하였고, 총각은 옥황상제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옥황상제는 금덩이 세 개와 여의주 두 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처녀가 결혼할 수 있다며 해결책을 알려 주었는데, 그 남자는 바로 총각이었다. 그렇게 처녀는 총각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평가 목표	읽기 목적에 따라 요약하기
채점 기준	✓ <조건>에 맞춰 요약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20점] ✓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 경우 [10점]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간단 복습문제

09쪽

- 쪽지 시험 01 객관적 02 독자 03 주제, 중요한지 04 ㉠
 05 ㉡ 06 ㉢ 07 ㉣ 08 ㉤ 09 ㉥, ㉦ 10 ㉧, ㉨
 여휘 시험 01 서식 02 자료 03 선별 04 형성 05 공
 존 06 가치 07 진화 08 ㉢ 09 ㉣ 10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0~11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1 우주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독도를 알리는 글을 쓰려고 계획하였다.

- 02 (나)는 인터넷, 텔레비전, 책 등에서 찾은 독도와 관련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나)는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03 ㉢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찾은 자료로, 독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활용해야 하므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다시 찾아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은 독도의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② ㉡은 독도의 역사 기록과 관련된 내용으로 ‘독도의 지리와 가치’라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④ ㉤은 텔레비전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⑤ ㉥은 독도의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 04 우주는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하므로, 독도의 가치를 설명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 05 (라)에서 ‘공치, 방어’를 예로 들어 독도에 서식하는 생물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에서 ‘코끼리바위, 촛대 바위, 독립문 바위’ 등을 예로 들어 독도의 다양한 암석과 지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썼다.

② 이 글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다.

③ 글쓴이가 독도에 갔던 일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가)에서 글쓴이는 독도가 왜 소중한지 잘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06 (나)에서 독도의 위치와 관련한 정보를, (다)에서 독도에 가는 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라)에서 독도의 자원 가치와 관련한 정보를, (마)에서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 독도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07 (나)에는 독도의 위치와 울릉도에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 독자가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독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독도가 정식으로 관광할 수 있는 섬인지, 독도가 왜 소중한지를 잘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독도의 위치와 전체 모습 등을 소개하고, 독도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이 글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③ (다)는 동도에만 관광이 허용되고 있음을 언급한 뒤 독도를 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위치와 독도가 동도와 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나) 뒤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라)는 독도의 수산 자원과 지하자원의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마)는 독도의 다양한 암석과 지형, 독도 특유의 지질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 덕분에 세계적인 지질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독도의 다양한 암석과 지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보기>는 독도의 해양 생물 사진이다. 따라서 독도의 수산 자원의 가치를 설명하는 (다)에 추가할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12쪽

1단계 01 ㉠-㉡-㉢-㉣-㉤ 02 글의 주제, 글의 목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

2단계 03 ‘가운데 2’에서 ‘독도의 상징물’은 ‘가운데 2’의 중심 내용인 독도의 가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04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

3단계 05 ‘글에 답을 만큼 중요한 정보인가?’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두 자료를 살펴보면, 독도 새우가 어획량이 적어 값이 비싸다는 내용의 ④는 독도에는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는 내용의 ⑦보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제외해야 한다.

1단계

0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등을 정하는 ‘계획하기’,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내용 생성하기’, 개요를 작성하고 자료의 활용 계획을 세우는 ‘내용 조직하기’,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글쓰기’, 쓴 글을 점검하고 고치는 ‘고쳐쓰기’의 과정으로 쓴다.

02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글의 주제,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여 글쓰기 방향을 정한다.

2단계

03 이 글은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설명하는 글인데, ‘가운데 2-독도의 가치’의 하위 내용 중 ‘독도의 상징물’은 독도의 가치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04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가져와서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원래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해야 한다.

3단계

05 ⑦과 ④는 모두 독도의 수산 자원에 관한 내용이지만, 정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도 새우만을 다룬 ④는 풍부한 수산 자원을 다룬 ⑦보다 중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자료 중에 ④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목표	평가 목표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적절한 답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과 기준에 따라 제외할 자료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만 맞는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13~16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별뿔별이라는, 든다
 06 ⑤ 07 ③ 08 ② 09 ② 10 ⑤ 11 ③ 12 ③
 13 ④ 14 ③ 15 ⑤ 16 독도의, 습하다 /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01 (마)는 별뿔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별뿔별의 상징적 의미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의 제목으로는 ‘별뿔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절하다.’

02 (가)는 처음 부분으로 별뿔별이라는 글의 화제를, (나)와 (다)는 별뿔별의 정체와 특징을, (라)와 (마)는 별뿔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03 (라)는 별뿔별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마)는 별뿔별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라)와 (마)는 대조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것이다.

04 (마)의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 두려워하기도 했다.”라는 문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만 선택해서 ‘옛날 사람들은 별뿔별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고 두려워하기도 했다.’와 같이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중심 문장은 “지금부터 하늘에서 빛을 내며 떨어지는 신비로운 별뚱별에 대해 알아보자.”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나)의 중심 문장은 “우리가 보는 별뚱별의 정체는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이다.”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다)에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어 내용을 재구성하여 ‘평상시에 별뚱별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낮에는 별뚱별의 빛보다 태양 빛이 훨씬 밝고, 별뚱별이 총알보다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다.’와 같이 중심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④ (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별뚱별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므로, 사례로 나온 우리나라와 일본을 ‘세계 여러 나라’로 묶어서 중심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05 **서술형** 통념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나 생각이다. (나)에 별뚱별이란 이름을 들으면 별에서 떨어져 나온 무언가가 별뚱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념이 드러나 있다.

06 이 글은 설화 중 민간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옛날이야기이다.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신비하거나 교훈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드러낸다. 또한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와 같이 막연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국가나 민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설화 중 신화에 관한 설명이다.

07 〈보기〉는 이 글이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즉, 교훈적인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읽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08 총각의 질문에 처녀는 “그런 사람만 있다면 어떤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로 보아 처녀가 욕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총각은 옥황상제에게 복을 타러 가는 자신의 사정이 급하지만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따라서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뜻하는 ‘제코가 석 자’라는 속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식은 죽 먹기’는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모양을 뜻하는 속담이다.

③ ‘쇠귀에 경 읽기’는 소의 귀에 대고 경을 읽어 봐야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속담이다.

④ ‘도토리 키 재기’는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을 이르는 속담이다.

⑤ ‘누워서 침 뱉기’는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10 (가)는 계획하기 단계로, 글의 목적, 글의 주제,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여 글의 방향성을 정하는 단계이다.

11 독도의 기후 변화 양상은 ‘독도의 지리와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개요에서 독도의 기후 변화 양상과 관련한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운데 1’에서 ‘독도에 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가운데 1’에서 ‘독도의 위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위치를 보여 주는 우리나라 지도를 수집할 수 있다.

④ ‘가운데 2’에서 ‘독도 수산 자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다양한 바다 생물을 소개한 다큐멘터리를 수집할 수 있다.

⑤ ‘가운데 2’에서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독도가 세계적인 지질 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신문 기사를 수집할 수 있다.

12 개요를 작성하면 글을 쓸 때 방향을 잘 잡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개요대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쓴 후 점검하고 고쳐 쓰는 과정은 필요하다.

13 〈보기〉는 독도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이므로 독도에 있는 지하자원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㉔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이 글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5 〈보기〉는 독도의 공시 지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를 (다)에 추가하면 독도 땅의 경제적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을 보완해 줌으로써 독자가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6 **서술형** (라)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독도의 연평균 기온은 …… 비교적 습하다.”라는 문장은 독도의 기후에 대한 내용이므로 (라)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2 단어는 나누어 보고, 매체는 건주어 보고



품사의 종류와 특성

간단+복습문제

18쪽

꼭지 시험 01 품사 02 불변어, 가변어 03 기능, 의미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무슨 02 놀자 03 두 04 이다 05 에서
06 은 07 는 08 ㉠ 09 ㉡ 10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9~20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01 단어는 형태가 변하는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의미 특성이 있는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라는 기준에 따라 나눈 갈래를 품사라고 한다.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무리인 독립언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능에 따라 품사를 분류한 것일 뿐, 이를 기준으로 자립어와 독립어로 품사를 분류하지는 않는다.

02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명사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 명사는 체언으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며,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03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품사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좋지'는 기본형 '좋다'의 형태가 바뀐 것이고, '갈'은 기본형 '가다'의 형태가 바뀐 것이다. 또한 '되었다'는 기본형 '되다'의 형태가 바뀐 것이다. '좋다'는 형용사, '가다'와 '되었다'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뒀산, 술방울, 동생, 학교'는 모두 명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04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변어이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체언이다. 체언 중에서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것은 대명사이다. '이것', '나'는 대명사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누리, 목, 물'은 모두 불변어이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지만,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⑤ '좁'은 불변어이지만, 문장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05 ㉠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인 수사에 해당한다. 밑줄 친 단어 중 ㉣과 같은 품사에 해당하는 것은 ㉣의 '셋'이다.

오답 풀이 ① '두'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여섯'은 체언 '살'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③ '다섯'은 체언 '개'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⑤ '한'은 체언 '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6 '그림'은 명사이고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체언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강, 달, 지리산'은 명사이고 '그것'은 대명사이다. '매우'는 수식언이자 부사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로 올 수 없으므로 '매우'는 '그림'과 바꾸어 쓸 수 없다.

07 '활짝'은 동사 '피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08 ㉠은 체언인 '빵'을 꾸며 주는 관형사인 반면에, ㉡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따라서 ㉠과 ㉡가 모두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 ㉢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은 관형사, ㉡와 ㉢는 조사, ㉣는 대명사이므로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④ ㉣ '이'는 주격 조사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⑤ ㉡는 대명사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체언이다.

09 '값다'는 동사, '차갑다'는 형용사로 둘 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10 '읽다'는 동사로 '-는다/-는다'와 같은 현재형이나 '-자'와 같은 청유형, '-어라/-아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를 붙여 쓸 수 있다. 하지만 '따뜻하다'는 형용사로 '읽다'처럼 현재형이나 청유형,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

11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에서는 '별안간 호들갑스럽게 펄쩍 뛴 듯이 놀라는 모양'을 뜻하는 '화들짝'이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용언인 '놀라'를 꾸미고 있다.

12 '가, 에서, 를, 은, 이다'는 모두 조사로,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단어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조사는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다'는 '이고, 이어서'와 같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가변어에 대한 설명이다. 조사는 불변어이다.

② 독립언, 즉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조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에 붙어 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③ 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의 '은'에만 해당한다.

④ 격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의 '가, 에서, 를, 이다'에만 해당한다.

13 ㉣ '오'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인정하는 뜻으로 내는 소리로,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낼 때 쓰이는 감탄사이다.

특집 서술형문제

21쪽

1단계 01 저녁노을, 바람 02 자꾸, 다

2단계 03 • 공통점: ㉠와 ㉡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 차이점: ㉠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04 ㉠은 문장 전체를, ㉡은 명사 '사람'을, ㉢는 동사 '일어날까'를 각각 꾸며 주고 있다.

3단계 05 ㉠은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은 수식언이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06 ㉠의 기본형은 '머뭇거리다', ㉡의 기본형은 '숨기다', ㉢의 기본형은 '하얏다', ㉣의 기본형은 '뛰어들다', ㉤의 기본형은 '따스하다'이다. 이 중 ㉠, ㉡, ㉣는 동사이고, ㉢와 ㉤는 형용사이다.

1단계

- 01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는 품사는 체언이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이 해당한다. <보기>의 문장에서는 명사 '저녁노을'과 '바람'이 체언에 해당한다.
- 02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하고 용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보기>에서 용언 '걸어나가면'과 '만나고'를 꾸미는 부사는 '자꾸'와 '다'이다.

2단계

- 03 ㉠은 동사이고 ㉡은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둘 다 용언으로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반면에,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 04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수식언이다. 수식언에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와, 용언 또는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부사가 있다. ㉠ '과연'은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를 뜻하는 부사로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다. ㉡ '두'는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명사 '사람'을 꾸미고 있다. ㉢ '일찍'은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를 뜻하는 부사로 동사 '일어날까'를 꾸미고 있다.

3단계

- 05 ㉠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체언으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은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수식언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이므로, ㉠ 뒤에 붙을 수 있다. 그러나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평가 목표	품사의 분류 기준 적용하기
채점 기준	✓ 기능적 측면에서 ㉠과 ㉡의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10점] ✓ 조사 결합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10점]

- 06 ㉠은 '말이나 행동 따위를 섣뚱 결단하여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임'이라는 뜻의 '머뭇거리다'를 활용한 형태이므로 동사에 해당한다. ㉡은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뜻의

'숨기다'를 활용한 형태이므로 동사에 해당한다. ㉢는 '깨끗한 눈이나 밀가루와 같이 밝고 선명하게 희다'라는 뜻의 '하얏다'를 활용한 형태이므로 형용사에 해당한다. ㉣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다(참여하다)'라는 뜻의 '뛰어들다'를 활용한 형태이므로 동사에 해당한다. ㉤는 '조금 알맞게 따뜻하다'라는 뜻의 '따스하다'를 활용한 형태이므로 형용사에 해당한다.

평가 목표	평가 목표 용언의 기본형을 파악하고, 품사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채점 기준	✓ ㉠~㉤의 기본형을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10점] ✓ 의미를 기준으로 ㉠~㉤의 품사를 모두 정확하게 분류한 경우 [10점]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비교

간단 복습문제

23쪽

- 꼭지 시험** 01 대중 매체 02 인쇄, 음성, 영상 03 온라인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어휘 시험** 01 파급력 02 대중 03 정정 04 방영
05 ㉠ 06 ㉡ 07 ㉢ 08 취향 09 파장 10 분담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4~25쪽

- 01 ⑤ 02 ②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③ 09 ⑤ 10 ⑤ 11 ②

- 01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상으로 내보내는 방송이며, 전통적 대중 매체는 책이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 02 대중 매체는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한다.
- 오답 풀이** ① 대중 매체는 정해진 시간에 정보를 전달한다.
② 대중 매체는 대중이 관심을 가진 만한 주제로 방송을 제작한다.
④ 방송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⑤ 대중 매체는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다.
- 03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은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대중 매체로, 정해진 시간에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 자신이 관심 있는 방송의 채널을 직접 찾아가야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 매체와 성격이 다르다.

04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여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에 접속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므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시청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대중 매체보다 그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③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다.

05 제시된 만화에서는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 촬영, 연출, 편집, 진행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요리 연구가 등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방송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이 만화에서 시청자는 방송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을 뿐, 자신의 생각을 생산자에게 전달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한 대중 매체는 생산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생산자와 수용자 간에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하기는 어렵다.

07 <보기>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의 깃털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추후에 정보를 찾아보고 자막을 달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제와 관련한 전문성이 낮더라도 누구나 방송을 제작하고 방송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08 ㉠에서 시청자는 대중 매체의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을 남겼지만, 방송 관계자는 촬영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는 이유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반면에 ㉡에서는 다음 방송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 매체는 정보 생산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계획된 내용만을 전달하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즉각적으로 내용을 조정하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① 정보 수용자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가 아니라 ㉠이다.

② ㉠은 개인이 혼자 제작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에 비해 정보를 주관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④ ㉠은 대체로 수용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하기가 어렵지만, ㉡는 대체로 수용자와 생산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

⑤ ㉠은 대체로 수용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어렵지만, ㉡는 정보가 쌍방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생산자와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09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방송에 접속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개인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개

인 인터넷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10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면, 시청자에게 왜곡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

11 유명한 사람이 전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은 '지유'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26쪽

1단계 01 대중 매체 02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에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2단계 03 ㉠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지만, ㉡는 전문성이 없더라도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04 대중 매체는 광고를 하여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 수나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3단계 05 ㉠은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의견을 방송 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반면 ㉡는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06 <보기>의 상황은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지 판단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단계

01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통틀어 대중 매체라고 한다. 대중 매체에는 책이나 신문 등의 인쇄 매체,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가 있다.

02 <보기>에서 시청자가 오늘은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냐고 묻자 방송 제작자가 오늘은 여행 소개가 아니라 깃털김치를 만들겠다고 답하고, 이에 시청자들은 좋아하는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방송 제작자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시청자의 의견에 맞추어 내용을 조정하기도 하면서 상호 작용을 한다.

2단계

03 대중 매체는 촬영, 편집, 감독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방송 제작에 참여하여 비교적 전문성이 높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전문성이 낮다.

- 04 방송 매체의 경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 방송을 편성하거나 프로그램의 소품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반면에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로 시청자가 해당 방송을 얼마나 많이 조회하고 시청하였는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3단계

- 05 방송 매체는 일반적으로 수 회 분량의 방송을 미리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제작자와 시청자가 상호 작용을 실시간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가 제안을 하거나 의견을 주더라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제작자와 시청자가 댓글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목표	대중 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징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 적은 경우 [10점]
	✓ 방송 제작자의 태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밝혀 적은 경우 [10점]

- 06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방송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나 그릇된 정보가 전달되기도 한다. 따라서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매체 이용의 바람직한 태도 생각하기
채점 기준	✓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쓴 경우 [10점]
	✓ 매체 수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27~30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③	05 ⑤	06 ④	07 ⑤
08 ④	09 ②	10 ②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⑤	16 ②	17 ⑤	18 ⑤	19 ④	20 정
21 ⑤	22 ③	23 ①				

- 01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이지만 단어로 분류한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은 단어별로 '바다 / 가 / 매우 / 푸르다'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02 '동생, 얼마, 전, 학교'는 명사, '은, 예, 를'은 조사이다. 명사, 조사는 불변어에 속한다. '졸업했다'는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쳤다.'라는 뜻의 동사 '졸업하다'가 활용된 형태이다. 동사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 03 '선수, 운동장, 그, 모습'은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하는 체언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매우'는 용언을 꾸며 주는 수식언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 04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보기>에는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좋다'를 활용한 '좋지'와, '잡스럽고 탁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맑다'가 쓰였다.

- 05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물건을 나타내는 명사를 구체 명사라고 하고,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를 추상 명사라고 한다. '돼지, 낙엽, 솔방울, 운동화, 우산'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물건이나 생물을 나타내므로 구체 명사에 해당하고, '사랑, 자유, 명예'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므로 추상 명사에 해당한다.

- 06 '그 사람'에서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 07 ㉠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수사이고, ㉡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수사와 부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이다. '셋'은 '둘에 하나를 더한 수'를 뜻하는 수사이고, '나란히'는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가지런한 상태로'를 뜻하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술술'이라는 부사는 있지만 수사가 없다.

② '지금'이라는 부사는 있지만 수사가 없다.

④ '없이'라는 부사는 있지만 수사가 없다.

⑤ '매우'라는 부사는 있지만 수사가 없다. '네'는 수사가 아니라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08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으며,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 09 동사는 '-는다/-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 '-자'와 같은 청유형 어미, '-어라/-아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와 결합하여 '먹는다', '먹자', '먹어라'처럼 활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 청유형 어미, 명령형 어미를 붙여 쓸 수 없다.

- 10 '웃다'는 '기쁘거나 만족스럽거나 우스울 때 얼굴을 활짝 펴거나 소리를 내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 11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보조사 '만'을 사용하여 다른 음식이 아닌 오직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뜻을 나타낸 ④가 <보기>와 가장 비슷하다.

- 12 '즐겁다'는 형용사로, 대상의 형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하지만 형용사는 현재형이나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즐거우세요'라고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형 어미 '-는다/-다'와 결합할 수 없고 '알맞은'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추천하게'도 동사 '추천하다'가 적절하게 활용한 형태이다.

- ② '가다'는 동사이므로 '가자'라는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양보하다'는 동사이므로 '양보한다'라는 현재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달려가다'는 동사이므로 '달려가라'라는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울리면'과 '빠르게'도 동사 '울리다'와 형용사 '빠르다'가 적절하게 활용한 형태이다.

13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이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일 뿐,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14 '성희야'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 '성희'에 호격 조사 '야'가 결합한 것으로 감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⑤의 '모자를 바로 쓴'에서 '바로'는 용언 '쓴'을 꾸며 주는 부사이고, '바로 인격을 지키는 길이다.'에서 '바로'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풀이 ① '한'은 관형사, '하나'는 수사이다.

② '그는'에서 '그'는 대명사, '그 사람'에서 '그'는 관형사이다.

③ '대결만큼'에서 '만큼'은 조사, '노력한 만큼'에서 '만큼'은 명사(의존명사)이다.

④ '나는 아니 기뻐다'에서 '아니'는 부사,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에서 '아니'는 감탄사이다.

16 (가)에는 촬영 감독, 사회자, 편집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방송 제작자 한 명이 촬영, 진행 등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는 김치의 유래를 설명한 뒤 김치를 직접 만들고 있고 (나)는 깻잎김치를 직접 만들고 있으므로 둘 다 주제는 김치이다.

③ (가)는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된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나)는 원래 여행지를 소개하는 방송인데 요번 방송에서는 깻잎김치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에서 제작자가 방송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는 실시간으로 제작자와 수용자가 소통하기가 어렵지만, (나)는 세종킹이라는 시청자가 '그런데 깻잎김치는 어느 지역의 김치인가요?'라고 실시간으로 제작자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⑤ (나)는 개인이 혼자 방송하지만, (가)는 요리 연구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는 전달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

17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이미 촬영된 방송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방송으로 진행되더라도 방송을 하는 중간에 시청자의 의견을 전달하기 쉽지 않다. 즉,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 간에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18 (가)를 보면, 방송 제작에 촬영, 기획, 감독, 진행, 편집 등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방송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출연한다. 이처럼 방송 매체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의 정보를 전달한다.

오답풀이 ① 대중 매체는 방송을 제작할 때 전문 장비를 사용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방송 제작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든다.

② 대중 매체가 광고를 하여 수익을 얻지만, (가)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

④ 대중 매체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내보내기 때문에 시청자는 시간에 구애를 받는다.

19 (나)의 두 번째 장면을 통해 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로 여행지를 주제로 방송하였다는 것과 시청자 역시 여행지 정보를 얻기 위해 방송에 접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반드시 대다수의 관심을 반영하여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방송 알림을 보고 들어왔다는 것에서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한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20 **사술형**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에 접속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 매체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시간과 관계없이 개인 인터넷 방송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청자(조회 수)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이 대중 매체보다 클 수 있다.

21 시청자가 오징어파김치나 깻잎김치도 나중에 방송에서 보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방송 제작자는 이미 잡혀 있는 촬영 일정 때문에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 매체는 이미 기획된 내용에 따라 방송을 제작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 내용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오답풀이 ①, ② 개인 인터넷 방송에 관한 설명이다.

③ <보기>에서 제작자는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시청자가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제작자가 시청자의 의견에 답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2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그릇된 표현을 사용한 콘텐츠,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공영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기>와 같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23 대중 매체에는 여러 전문가가 등장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지만, 그 정보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의견이 타당한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살펴 보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갈등을 딛고 크는 우리들



갈등하고 화해하고

간단+복습문제

32쪽

- 꼭지 시험** 01 갈등 02 내적 갈등 03 1인칭 주인공 시점
04 ㉠ 05 ㉡ 06 ㉢, ㉣ 07 ㉤ 08 ㉥ 09 ×
10 ×
- 어휘 시험** 01 수작 02 기색 03 달려 04 감때사나운
05 하릴없이 06 암팡스레 07 알싸한 08 ㉠ 09 ㉡
10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3~34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1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독자에게 미리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암시하는 복선은 드러나 있지 않다.
- 02 '나'와 점순은 어제까지도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서로 만나도 본적만척하던 사이이다.
오답 풀이 ① '우리가 이 동네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온다는 내용을 통해 '나'와 점순이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점순은 '나'에게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감자를 주었으며, '나'가 자존심이 상한 것은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을 들어서이다.
④ '나'는 평소와 달리 '나'에게 말을 거는 점순을 의아해한다.
⑤ 점순은 자신의 호의가 '나'에게 거절 당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무안하며 화가 나서 눈독으로 달아난 것이다.
- 03 ㉢에는 '나'가 감자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한 점순의 심리가 드러난다.
- 04 '나'가 점순이 주는 감자를 거부한 후 점순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와의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에 ㉢가 '나'가 점순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호의'란 '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을 뜻한다. 점순은 '나'에 대한 관심을 감자 세 개를 건네주며 표현한다.
② '나'는 감자에 담긴 점순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감자를 점순에게 바로 돌려준다. 이를 통해 '나'가 순박하고 눈치가 없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감자를 건네면서 점순이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굵은 감자 세 알이 '나'의 집에서는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점순네는 마름이고 '나'의 집은 소작농이라는 가정 형편의 차이가 드러난다.
⑤ '나'가 점순이 준 감자를 받지 않은 일을 계기로 점순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므로, 감자를 '나'와 점순의 갈등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 05 (라)에서 점순이 '나'에게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 거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자기 집 닭을 죽인 '나'를 봐주려고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의 '저의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씹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마련해 준 것'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④ (가)의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가)의 '열일곱살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06 ㉠은 '나'의 부모가 점순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또한 (가)에서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삼 굶질거린다.'에서 소작농은 마름에게 굶질거리야 하는 사회적 현실이 나타나 있으므로, ㉠에 마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점순은 자신의 수탉이 이길 것을 알면서 '나'의 닭과 싸움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점순이 닭싸움을 붙일 때마다 괴로워한다.
③ 닭싸움을 통해 점점 심화된 갈등은 결국 '나'가 점순네 닭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나'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당황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④ '누 집 닭'은 점순네인 마름 집 수탉을 뜻하며 그 수탉을 '나'가 죽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
⑤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주겠다는 점순의 마음이 담긴 말이므로 마름 집 수탉을 죽여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나'의 상황이 잘 수습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 07 점순은 마름의 딸이므로 소작농의 아들인 '나'는 점순네 수탉을 건드리면 안 되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가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에서 '나'가 다혈질적인 성격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8 (가)에서 점순네가 노하면 '나'의 가족은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 '나'가 점순네 수탉을 죽인 것은 점순네를 노하게 할 만한 일이므로, 이로 인해 '나'의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나'는 울음을 놓은 것이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35쪽

- 1단계** 01 그림 너 이담부터 내 관심과 호의를 무시하지 말아라.
2단계 02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소작농의 아들이고 점순은 마름의 딸이기 때문이다.
3단계 03 (나)는 절정 단계로 '나'가 점순의 닭을 단매로 때려죽이면서 '나'와 점순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다)는 결말 단계로 '나'와 점순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1단계

- 01 ㉠은 점순이 '나'에게 다음부터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2단계

- 02 '나'는 '노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감자를 거절하였다. 또한 점순은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이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자신의 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자를 거절한 것이다.

3단계

- 03 소설의 '절정'에서 두 인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결말'에서 두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글의 주된 갈등은 '나'와 점순의 외적 갈등으로, '나'가 점순의 괴롭힘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순의 '수탉'을 '단매'로 때려죽이는 장면에서 두 인물의 갈등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후 점순이 '나'가 점순네 수탉을 죽인 것을 눈 감아 주기로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동백꽃' 속으로 넘어지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화해하고 갈등이 해소됨을 알 수 있다.

평가 목표	구성 단계와 갈등의 정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나), (다)의 구성 단계를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나), (다)의 중심 소재와 중심 사건을 서술한 경우 [10점]

존중하고 배려하고

간단+복습문제

37쪽

- 꼭지 시험** 01 ○ 02 ○ 03 × 04 × 05 ○ 06 ○
 07 ㉠, ㉡ 08 ㉢, ㉣ 09 ㉤ 10 ㉥
어휘 시험 01 영향력 02 점검 03 유발하기 04 존중하다
 05 버금가다 06 헤아리다 07 ㉠ 08 ㉡ 09 ㉢
 10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8~3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1 언어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 02 '나'가 친구들과 온라인 대화를 하면서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지, 친구들과 온라인 대화를 한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윤호가 저번에 시험을 망쳤다고 했을 때 위로를 해 주지는 않고 바보라고 놀렸다.

② '나'는 윤호에게 뽕점이라는 별명을 지어 부르거나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짜증 나니까 말 걸지 마!'라고 하는 등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하였다.

③ '나'는 시험을 망친 윤호에게 바보, 뽕점이라고 놀리고 윤호와 민선보다 자신이 성적 좋다고 하며 친구들을 비하하였다.

④ '나'는 윤호에게 바보, 뽕점이라고 부르며 놀렸던 일을 이제 와서 미안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사과하지 않았다.

- 03 (나)는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친 말도 언어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더라도 재미 삼아 던진 말이 언어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04 차별이 담긴 말이 언어폭력이 될 수 있지만,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 언어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말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5 상대방에게 요구하듯 말하면 상대방은 강요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바라는 점을 말해야 한다.

- 06 바쁘다고 꾸민을 하는 친구에게는 바쁜 상황을 이해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바쁜 상황이 본인이 원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② '나'를 주어로 하여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③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④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07 ㉠은 '나'를 주어로 하여 진솔하게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를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전달하는 대화이다.

오답 풀이 ① ㉡은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명령하듯 말하므로 상대방은 강요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상할 것이다.

② ㉢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말하므로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 ④ ㉠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며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므로 상대방은 부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 ⑤ ㉠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므로 상대방은 반감을 느끼지 않고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08 두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 무릎을 바깥으로 하고 앉은 자세는 아빠들만 하는 자세는 아니다. 그러므로 ‘아빠다리’는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책상다리’와 같이 차별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평가 목표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
채점 기준	✓ 명령하듯 말하기의 문제점을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로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10점]

고득점 서술형문제

40쪽

- 1단계** 01 상처 주는 말(상처가 되는 말) 02 ‘나’를 주어로 하여 말하기
- 2단계** 03 동아리 활동 때문에 바쁘구나. 정말 힘들겠다. 04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친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 3단계** 05 상대방은 강요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상한다.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 거기 문 좀 닫아 줄 수 있어?”

1단계

- 01** 언어폭력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보기>의 온라인 대화에서 ‘나’와 친구들은 공격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나’의 일기에서 ‘상처 주는 말(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표현되어 있다.
- 02**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2단계

- 03** 동아리 활동으로 바쁘다는 자신의 상황을 푸념하는 친구의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며 말해야 한다.
- 04** 재미(장난) 삼아 한 말이거나 사소하게 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상처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 폭력도 물리적인 폭력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평생 가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3단계

- 05** ‘문 좀 닫아.’는 명령하는 말하기이다. 명령하듯 말하면 상대방은 강요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상한다.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41~44쪽

- 01 ② 02 ② 03 ② 04 ‘나’가 점순이 준 감자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05 ④ 06 ③ 07 ③ 08 ① 09 ⑤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③ 15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반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해야 한다. 16 ③

- 01** (가)의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를 통해 ‘나’는 점순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2** 고추장을 먹인 ‘나’의 수탉은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 점순네 수탉의 반격으로 다시 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점순이 ‘나’의 씨암탉을 때리는 모습은 나오지만 죽이지는 않는다.

- ③ (라)에서 ‘나’가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④ (라)에서 ‘나’는 자신의 닭에 고추장을 먹여 닭싸움을 붙인다.
⑤ 점순은 ‘나’가 자신이 준 감자를 거절한 이후부터 ‘나’를 괴롭혔다.

- 03** ㉠은 점순이 감자를 거절 당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모습이다. 점순은 계속해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자신이 준 감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거절하자 점순은 무안하고 자존심이 상해 씩씩거리며 숨을 거칠게 쉰다.

- ③ 점순이 ‘나’의 닭을 때리는 것을 보고 놀라서 눈이 둥그레진다.
④ 고추장을 먹인 ‘나’의 닭이 점순이 닭을 공격하자 점순은 기분이 좋지 않아 눈살을 찌푸린다. ‘입맛이 쓰다’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기분이 언짢거나 괴롭다.’라는 뜻이다.
⑤ 점순네 닭을 공격하던 ‘나’의 닭이 점순네 닭에게 반격을 당하자 점순은 ‘나’를 약 올리기 위해 내가 들으라고 깔깔거리며 웃는다.

- 04** **서술형** (나)에서 ‘나’가 자신이 준 감자를 거절하자 자존심이 상한 점순은 그다음 날부터 ‘나’의 닭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 05** ‘이놈아’, ‘이 자식아’와 같은 비속어와 ‘느 아버지’, ‘누 집’과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진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 낸 인물, 사건, 배경을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 낸 소설이다.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므로 '나' 이외의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

③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된다.

⑤ 점순의 행동은 일제 강점기 마름의 횡포가 아니라 사춘기 소녀가 사랑에 눈을 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 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06 (다)에서 '나'는 점순의 답을 때려죽인 후 분하기도 하지만 '나'의 집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를 본 점순이 (라)에서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라고 묻자 '나'는 살길을 찾은 듯이 안심한다.

07 ㉠은 점순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나'는 분노를 느끼고, 점순에 답을 죽이는 일까지 한다. 그러므로 ㉠을 통해 '나'가 점순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의 침해'는 점순이 '나'를 약 올리거나 자신의 수탈과 '나'의 수탈을 싸움에 붙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② '나'에게 호감이 있는 점순이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다.

④ 욕을 하며 유치하게 싸우는 '나'와 점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점순에 닭까지 죽이는 일,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라는 점순의 말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안 그러겠다고 말하는 것 등에서 해학성이 나타난다.

⑤ '나'는 점순의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점순에 닭을 때려죽인다.

08 점순이 '나'가 자신의 닭을 죽인 사실을 감추어 주고 '나'와 함께 동백꽃 속으로 파묻혀 버린다. 즉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 화해했음을 보여 주면서 둘의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 준다. 갈등이 해결되는 결말 부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암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가)의 '내가 쓰았던 화살이 이렇게 돌아오다니…….'에서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이 시험을 망친 '나'에게 나약하다거나 피병이라는 등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데 '나'도 윤호에게 '바보, 뺑뺑'이라고 놀리며 말실수를 하여 윤호에게 상처 준 적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폭력은 대면 상황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화방, 사회관계망 서비스 같은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② (가)와 (나)에서 언어폭력이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언어폭력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를 통해 의도하지 않고 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를 통해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별명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므로 언어폭력이 될 수 없다.

10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언어폭력이다. 격식을 갖춘 말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로 볼 수 없다.

11 (나)에서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영상의 장면이나 자막의 내용으로 보아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을 다루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영상의 장면 속 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아 언어폭력이 폭력이고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⑤ 영상의 장면이나 자막의 내용으로 보아 재미 삼아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평생 가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다)에서 '아빠다리'는 성차별적, '양반다리'는 계층 차별적 표현이므로 차별이 드러나지 않는 '책상다리'로 바뀌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책상다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문제를 다룬 기사문이다.

② 이 글에서는 '아빠다리', '양반다리', '코끼리 다리'가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이다.

③ 두 표현 모두 차별적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책상다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그 위에 포개어 엮고 앉은 자세.'로 올라가 있는 올바른 표현이다.

13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말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바라는 점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감을 느끼지 않고 대화를 원활히 이어 갈 수 있으며,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14 A는 자신의 속상함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으나, B는 A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뭘 그런 걸로 그래?'라는 B의 말은 A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바로 답을 안 해 주어서 자신이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② B는 A가 자신이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표현한 말을 듣고는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통명스럽게 답변을 하고 있다.

④ C는 A가 자신이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표현한 말을 듣고 자신이 한 행동을 먼저 사과하였다. 그리고 난 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까닭을 말하였으며 앞으로 자신이 A를 배려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이야기하며 A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하고 있다.

⑤ A는 B의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C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심리적으로 편안해졌을 것이다.

15 **서술형** <보기>에서 말하는 이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 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해야 한다.

16 <보기>의 ㉠, ㉡은 '달아 줄 수 있어?', '설령 한 번만 해 줄래?'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며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 것이다.

4 문제를 풀어내는 즐거운 방법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간단+복습문제

46쪽

- 꼭지 시험** 01 공동 02 근거 03 협력적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어휘 시험** 01 ㉦ 02 ㉧ 03 ㉨ 04 ㉩ 05 금세
06 무리 07 시행 08 통행 09 공개적 10 방안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47~48쪽

- 01 ㉠ 02 ㉡ 03 ㉢ 04 ㉣ 05 ㉤ 06 청중과의 질
의응답 07 ㉥

01 우주가 '분실물 문제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교 학생회의 운서, 준후, 신비 학생이 ~ 토의를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패널 토의 방식으로 이 토의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널 토의는 어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패널이 되어 의견을 교환하고,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02 준후는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을 뿐, 분실물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03 윤서는 현재의 분실물 보관함 위치가 구석에 있기 때문에 분실물 보관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기자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은 신비가, ㉡은 준후가 제시한 근거이다.

04 ㉠에서 사회자인 우주는 윤서, 준후, 신비 학생이 '우리 학교의 분실물, 어떻게 줄일까?'를 주제로 토의를 준비해 왔다고 말하면서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있다.

05 (다)에서 우주가 신비에게 '이름 스티커 제작을 제안했던 신비 학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는 다른 토의자의 의견에 대해 신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신비가 자신의 제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④ (나)에서 시우는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해도 물건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라고 하며 그 계획을 윤서에게 질문하고, 이에 윤서는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실물을 폐기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분실물을 정리하면서 폐기할 물건을 따로 빼 둘 생각이라고 답하고 있다.

③ (가)에서 준후는 한 달에 한 번 '분실물 찾아 주는 날'을 정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할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⑤ (다)에서 신비는 지난 축제에서 학생회가 장터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이름 스티커 제작비로 쓰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06 (나)에서 '토의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중의 질문을 받겠습니다.'라는 우주의 말을 통해 토의자 간의 의견 교환이 끝나고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07 ㉠에서 준후는 분실물을 정리하면서 폐기할 물건을 따로 빼 두겠다는 윤서의 의견에 대해, 폐기하는 물건 중에서 상태가 좋은 물건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른 토의자의 의견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협력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신비는 ㉠에서 준후의 말을 중간에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토의의 진행을 방해한다.

② 윤서는 ㉠에서 청중인 시우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원활한 토의 진행에 기여하고 있다.

④ 신비는 ㉡에서 전교생의 이름 스티커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준후의 의견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고 있다.

⑤ 우주는 사회자로서 (라)에서 토의 결과를 정리해 제시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은 토의 결과 중 하나이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49쪽

1단계 01 이 토의의, 삼가기를 바랍니다

2단계 02 신비는 이름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운 물건이 많다는 사실을 미처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단계 03 [A]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목소리를 높여 위협적으로 말하며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반면 [B]는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 의견을 인정하고 그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토의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1단계

01 (가)에서 우주는 신비가 준후의 답변에 대해 감정적이고 위협적으로 발언을 하자 토의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은 삼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언쟁이 발생한 상황을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토의가 협력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2단계

02 윤서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로 분실하는 품목 중에는 이름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신비에게 묻고 있다. 하지만 신비는 이 점을 미처 알고 있지 못해서 당황한다. 즉, 토의 전에 자신의 제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미흡하게 조사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단계

- 03 [A]에서 신비는 준후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목소리를 높여 감정적이고 위협적으로 준후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토의가 협력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다. 반면에 윤서는 준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준후의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가 목표	토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한 경우 [10점] ✓ [A]와 [B]의 방식이 토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비교한 경우 [10점]

고득점 서술형문제

50쪽

- 1단계** 01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옮기는 대신,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하기로 함.
- 2단계** 02 청중은 토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함으로써 토의가 더욱 알차고 풍부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한다.
- 3단계** 03 ㉔는 우리 학교의 분실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㉕는 첫째, 분실물 보관함 안에 있는 물건을 담당자가 돌아가며 정리하는 것, 둘째, 한 달에 한 번 분실물 찾아 주기 캠페인을 하는 것, 셋째,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1단계

- 01 (다)에서 윤서는 시우의 질문에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물건을 따로 빼 두겠다고 말하자, 준후는 폐기하는 물건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것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윤서는 굳이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분실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으며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였다.

2단계

- 02 청중인 가윤과 시우는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토의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토의 내용이 더 알차지고 결론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단계

- 03 토의에서 공동의 문제는 곧 토의 주제이다. (라)에서 우주의 말을 고려할 때, 이 토의의 주제는 ‘우리 학교의 분실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의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이란, 토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합의한 결과를 말한다. (라)에서 우주는 합의된 토의 결과로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옮기는 대신에 담당자를 정하여 분실물 보관함을 정리하

기, 한 달에 한 번 분실물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하기,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 목표	토의의 문제 해결 방안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세 가지 해결 방안을 모두 쓴 경우 [15점] ✓ ㉔와 ㉕를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주장하는 글 쓰기

간단+복습문제

52쪽

- 쪽지 시험** 01 논리적 02 독자 03 근거 04 고쳐 쓰기
 05 ㉠ 06 ㉡ 07 ㉢ 08 ㉣ 09 × 10 ×
- 어휘 시험** 01 ㉠ 02 ㉡ 03 ㉢ 04 투고한 05 모호한
 06 건전하게 07 타당하지 08 과다 09 또래 10 단정적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53~54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1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쓴 글을 말한다.
- 02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문제 상황을 파악한 뒤,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하여 글을 쓸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마련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면서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그리고 개요를 바탕으로 글(초고)을 쓴 다음(㉣),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면서 수정·보완할 부분을 고쳐 쓴다(㉤).
- 03 신비네 모둠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를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보아 신비네 모둠이 쓰려는 글의 핵심 제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04 (마)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위험성을 깨닫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없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② (나)에서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 거북 목 증후군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라)에 제시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 응답자의 59.8 퍼센트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05 <보기>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상반된다. 따라서 <보기>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보기>는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학습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사회성이 발달하기 어려워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내용의 (라)의 뒤에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07 (다)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⑤와 같이 (다)의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고쳐 써야 한다.

08 주장하는 글에서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에게 반감을 주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은 주관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특집 서술형문제

55쪽

1단계 01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

2단계 02 ㉠: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3단계 03 ㉠에는 '거북 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과 같은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는 예상 독자인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중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쓴 것이다.

1단계

01 (가)에서 글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하면서,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단계

02 (가)에서 글쓴이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나)~(라)에서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첫 번째 이유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라)에서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한 후, 그 근거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 중에 가족과 갈등을 겪은 사람이 많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

03 ㉠에는 '거북 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과 같은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글의 예상 독자인 중학생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일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보기>와 같이 중학생을 고려하여 전문어를 쉽게 풀이하여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목표	독자를 고려한 고쳐 쓰기
채점 기준	✓ ㉠에 쓰인 어휘의 특징을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예상 독자인 중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쓴 것임을 쓴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56~59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② 05 ⑤ 06 ③ 07 ⑤
08 ⑤ 09 ⑤ 10 결론, 우리 집의 사례를 삭제하고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뒤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한다. 11 ② 12 ③
13 ⑤

01 (가)에서 신비는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꼭 쓰는 학생이 2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자의 소지품에 붙이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면 자기 물건에 붙이겠다는 학생이 많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02 (다)에서 준후는 윤서의 제안에 대해 분실물 보관함을 학교에서 아주 혼잡한 공간 중 하나인 1층 중앙 현관 복도로 옮긴다면 학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신비는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옮긴다고 분실물이 줄어든 것인지 의문을 드러내면서, 먼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3 ㉠은 (가)에서 토의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는 서로의 의견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서로의 의견에 집중하며 의견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자는 토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집중력 있게 토의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04 이 토의는 학교의 분실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패널로 참여한 패널 토의이다. 패널 토의는 어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패널이 되어 의견을 교환한 후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토의를 말한다.

오답 풀이 ①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심포지엄에 대한 설명이다.

④ 원탁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포럼에 대한 설명이다.

05 신비는 주리의 질문에 학생회의 장터 수익금으로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윤서는 '비용 문제는 학생회 협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신비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신비가 학생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제작 비용 마련 계획을 말하였기 때문이지, 신비의 의견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06 신비는 준후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준후의 의견을 위협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신비의 태도는 협력적인 의사소통과 원활한 토의 진행을 방해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토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사회자인 우주는 ㉠과 같이 말하여 토의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신비에게 주의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07 주장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에 따라 짜임새 있게 단계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은 주관적이므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은 설득력을 떨어뜨리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③ 문제 상황에 대한 주장을 정한 뒤 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글을 써야 한다.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아야 하고, 정확한 사실인지, 출처가 믿을 만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08 신비네 모둠은 주장하는 글을 써서 학교 신문에 투고하려고 하는데, 신문은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

09 ㉠~㉥은 근거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의 근거들은 신체적 문제, 뇌 발달의 문제이므로 ㉠에는 ㄹ이, ㉡의 근거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ㄴ이, ㉢에는 가족과의 갈등, 사회성 발달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ㄱ이 들어가야 한다.

10 **서술형** 결론에서 우리 집의 사례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지 않다. 따라서 우리 집의 사례를 쓰는 대신 본문에서 제시한 이유들을 요약정리한 뒤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11 (가)에서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라고 했지만 그 장점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유용성과 대조되는 무용성이 아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혹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어딘가에 부딪힌 적이 있는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했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와 같이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글의 화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15~19세 사이 청소년의 84퍼센트가 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 응답자의 59.8퍼센트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하며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에 관한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나)~(라)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 세 가지와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⑤ 2020년에 서울 연구원에서 실시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12 (나)에서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 문제를 근거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올바른 자세를 소개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과 관련이 없으므로 근거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라)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오래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 거북 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뇌가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13 ㉠은 (나)~(다)에 제시한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와 같은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이 글이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명료하게 수정하겠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② '거북 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은 예상 독자인 중학생이 이해하기에 어려우므로 쉬운 표현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③ ㉢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의 중심 내용인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라)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실전에 강한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61~66쪽

- 01 ① 02 ③ 03 ① 04 ③ 05 ⑤ 06 ③
07 ③ 08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마음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 착하게 살아야 한다. 09 ② 10 ④ 11 ①
12 ④ 13 ③ 14 ③ 15 ④ 16 ④ 17 ③
18 ① 19 ⑤ 20 ④ 21 ③ 22 ㉠은 사람을 대
신하여 나타내면서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대명사이고, ㉡은 뒤
에 오는 명사를 꾸미면서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관형사이다.
23 ⑤ 24 ② 25 ④

01 (나)에서는 한자어 '유성우(流星雨)'를 '유성'과 '우'로 나누어 그 뜻을 밝힘으로써 유성우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의 첫 문장에서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유성우가 생기는 이유와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 별뿔별이 빛을 내는 과정을 인과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과학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생각을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으나, 별뿔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시대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02 별뿔별은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먼지이며, 이 우주 먼지가 지구로 떨어질 때 우주 먼지가 지구의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게 된다.

03 <보기>의 첫 문장의 '이렇게 빛을 내며 떨어지는 별뿔별'을 단서로, <보기>의 앞 문단에서 별뿔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별뿔별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 (가)의 뒤에 <보기>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04 이 글은 별뿔별과 유성우를 설명하는 글이다. 중심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는 글이 아니므로 이러한 요약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05 (라)의 내용으로 보아 ㉠~㉣은 별뿔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마)로 보아 ㉤은 별뿔별을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이 글에서는 총각이 만난 인물들의 고민과 그 해결 과정은 나타나 있지만, 등장인물들 간의 대립이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07 총각은 복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복을 타지는 못했으나 대신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알아내서 인간 세계로 내려온다.

08 **시술형** 마음씨 착한 총각은 자신의 복은 타지 못했지만, 노인, 동자승, 처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옥황상제에게 해결 방법을 묻는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과 동자승의 고민을 해결해 준 총각은 그 보답으로 여의주 두 개와 금덩이 세 개를 얻음과 동시에, 결국 처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로 보아 이 글의 교훈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9 ㉠은 처녀의 고민에 대한 옥황상제의 답이다. 총각은 노인과 동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여의주 두 개와 금덩이 세 개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0 이 글은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므로, 독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같은 주관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독도는 우리 땅」은 글의 처음 부분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독자에게 익숙한 노래 가사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랫말 전체를 영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③ (나)는 독도에 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④ '연안 생물'은 '육지 근처 물가에 사는 생물', '심해 생물'은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과 같이 독자의 수준에 맞게 어휘를 쉽게 풀어서 쓰는 것이 좋다.

⑤ 이 글은 독도의 지리와 가치를 주제로 하고 있고 (마)에서는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기후에 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12 (마)는 독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산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암석과 지형, 특유의 지질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점 등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13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문장의 어느 곳에 쓰이든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하고, 문장에서 쓰이는 위치에 따라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우리말의 품사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로 세 가지이다.

② 품사는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④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

⑤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14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그리고 조사 중 서술격 조사 '이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문장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쓰이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서술격 조사 '이다' 제외)이다.

15 '울퉁불퉁'은 부사, '멋진'과 '빨간'의 기본형은 '멋지다', '빨강'으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몸매', '웃', '토마토'는 명사, '에', '을'은 조사, '입은'의 기본형은 '입다'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따라서 <보기>에 사용되지 않은 품사는 관형사이다.

16 ④의 ‘첫째’는 뒤에 오는 명사 ‘주’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17 <보기>에 사용된 조사는 ‘은’, ‘의’, ‘에’, ‘를’, ‘이다’로 총 5개이다. ‘저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이다.’라는 문장에 쓰인 품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저(관형사) 사람(명사)은(조사) 자신(명사)의(조사) 이익(명사)에(조사) 따라(동사) 태도(명사)를(조사) 바꾸는(동사) 기회주의자(명사)이다(조사).’

18 ㉠의 기본형은 ‘앉다’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문장에 쓰일 때 ‘앉고’, ‘앉았다’, ‘앉으며’ 등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 가변어이다.

19 ㉡ ‘그럼’은 대답하는 말로 감탄사이다.

오답풀이 ① ㉢ ‘많군요’의 기본형은 ‘많다’로 형용사이므로 현재형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② ㉤ ‘가느’의 기본형은 ‘가다’로 동사이므로 ‘가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③ ㉢ ‘아직’은 부사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준다.

④ ㉤ ‘모든’은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준다.

20 ① ‘살구꽃’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오답풀이 ①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명사’이다. ㉢ ‘나’는 자기를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② ㉤ ‘고향’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③ 추상적인 대상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대상을 말한다.

㉢ ‘꽃’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다.

⑤ 홀로 쓰일 수 없는 단어는 조사이다. ㉤ ‘진달래’는 명사로 홀로 쓰일 수 있다.

21 ㉡는 ㉠와 달리 ‘송알송알’, ‘조롱조롱’, ‘대롱대롱’, ‘충충’, ‘방긋’, ‘송송송’과 같은 부사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아’, ‘저런’, ‘췌’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와 ㉢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② 관형사는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순’, ‘저’, ‘한’, ‘새’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와 ㉢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④, 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부사를 사용하게 되면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어 생동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문장에 강조 효과를 부여하거나, 시간, 장소, 방법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22 **서술형** ㉠과 ㉢의 형태는 ‘그’로 같지만 ㉠은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내며 조사 ‘는’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대명사이고, ㉢은 뒤에 오는 명사 ‘일’을 꾸며 주며 조사와 결합하면 표현이 어색하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23 정보 통신 기술로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인 인터넷 매체도 대중 매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4 라디오는 음성이나 음악, 음향 등과 같은 청각 자료로 정보를 전달한다. (가), (나), (다)는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이고, (라)는 개인이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가)의 컷에는 텔레비전이 나오고 있는데, 텔레비전은 영상, 문자, 소리, 자막 등의 복합적인 자료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매체이다.

③ (다)에는 종이로 된 신문이 나오고 있는데, 신문 지면에는 사진과 문자로 된 정보가 보이고 있다. 신문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④ (라)에서 아들은 직접 ○○산 단풍 축제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⑤ (가)의 텔레비전에서는 ○○산이 단풍 축제에 복적이라는 정보를, (나)의 라디오에서는 단풍 축제가 열리는 ○○산으로 가는 길의 교통 정보를, (다)의 신문에서는 ○○산 단풍 축제의 일시, 장소, 행사에 대한 정보를, (라)의 스마트폰에서는 ○○산 단풍 축제의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산 단풍 축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25 (가)는 대중 매체, (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일반적으로 (가)를 제작할 때는 연출가, 촬영 감독, 방송인, 편집·음향 담당자 등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사람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이 기획, 촬영, 편집을 모두 담당하는 (라)에 비해 방송 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오답풀이 ① (가)는 생산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라)와 같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댓글 등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② (가)와 같은 대중 매체는 정해진 시간과 방송 채널에 방송을 내보낸다.

③ (가)와 같은 대중 매체를 제작할 때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기 때문에 (라)보다 전문성이 더 높다.

⑤ (가)와 같은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라)에 비해 크다.

실전에 강한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67~72쪽

01 ③	02 고추장	03 ②	04 ⑤	05 ⑤	06 ③
07 ④	08 ⑤	09 ⑤	10 ④	11 ④	12 ④
13 ②	14 ②	15 (1) 분실물 보관함 (2) 캠페인 (3) 스티커			
16 ⑤	17 ②	18 ④	19 ③	20 ④	21 ④
22 ③	23 ⑤	24 ④	25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01 이 소설에는 ‘면두’와 같은 사투리, ‘호드기’와 같은 토속어, ‘대강이, 덩저리’ 등과 같은 비속어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② 마름과 소작농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이들의 갈등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 글의 주된 등장인물은 ‘나’와 점순 두 사람이며, 두 사람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⑤ 이 글에서 비속어는 작품에 사실감, 현장감을 주며 해학성을 더한다.

- 02 **서술형** ‘나’는 씬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수탉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

- 03 (가)의 ‘오늘’로 보아 (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나)의 ‘나흘 전’으로 보아 (나)는 과거의 일임을 알 수 있다.

- 04 ‘격실격실’은 ‘나’가 과거 점순에 대해 평가한 말로, 말과 행동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실박하게’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실하게’라는 의미이다.

② ‘덩저리’는 ‘몸집’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은 ‘대강이’이다.

③ ‘부치므로’는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므로’의 의미이다. ‘부치다’ 중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도 있는데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이다.

④ ‘배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피’라는 의미이다. 땅을 소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는 ‘배재’이다.

- 05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 ‘나’는 자신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만을 서술할 수 있다.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시점에 해당한다.

- 06 ‘나’는 그동안 점순이에게 당한 일 때문에 몹시 화가 나서 이후의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점순네 수탉을 죽여 버린다. 하지만 점순은 이르지 않겠다고 ‘나’를 안심시킨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점순은 ‘나’에게 봄 감자가 맛있으면서 감자를 주며 자신의 호의를 내비치고 있다.

② (나)에서 ‘나’가 자신도 모르게 점순네 수탉을 죽였다는 점에서 ‘나’가 그동안의 화가 쌓여 화감에 점순네 닭을 죽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나’가 점순이 내미는 감자를 모른 척하며 안 먹겠다고 한 것은, 자신보다 계층도 높고 잘 사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생색을 낸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⑤ (가)에서 ‘나’는 점순이 자신을 좋아하여 감자를 건넨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의 순박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 07 ‘나’는 점순이 “그럼 너 이담부딪 안 그럴 테냐?” 하고 묻은 속뜻도 모른 채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래’라고 대답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라고 말하며 점순이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점순이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지고 눈물까지 어렸다는 점에서 점순이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다)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벌렁 자빠졌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나’의 모습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다)에서 ‘나’의 ‘그래’라는 대답을 듣고 ‘나’를 이르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점순은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나’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08 ‘나’는 뜻하지 않게 점순의 수탉을 때려죽이고 나서 마름인 점순네서 빌린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게 될까 봐 겁이 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09 (나)에서 중학교 때 언어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언어폭력으로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문제를 겪었다는 내용을 통해, 청소년기에 경험한 언어폭력이 성인이 되어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와 친구들은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았으므로 언어폭력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신체적 폭력에 버금가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을 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 언어폭력을 당하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의도성 없이 실수로 한 말도 언어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친구의 선행을 누리집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폭력의 사례로 볼 수 없다.

- 11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강요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12 ㄷ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며 말한 것으로 존중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할 때 상대방을 탓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ㄷ에는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상대방을 탓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 13 이 글은 토의의 시작 부분으로 사회자는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토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토의 참여자를 소개하고 발표 순서를 조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것은 보통 토의의 끝 부분

에서 이루어진다.

③ 청중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받는 것은 토의자 간의 의견 교환이 끝나고 나서이다.

④ 토의자 간의 의견 충돌을 조정하는 것은 토의자들의 제안이 끝나고 토의자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에서이다.

⑤ 문제 상황 설명은 사회자의 역할이지만, 해결 방안을 제안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토의 참여자의 역할이다.

14 우주의 말을 통해 최근 학교의 분실물 보관함이 꼭 차서 분실물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토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서술형** 사회자 우주가 순서대로 의견을 발표하라고 하자, 윤서, 준후, 신비는 자신의 발언의 첫 부분에서 각자의 제안을 밝히고 있다.

16 ㉠에서 신비는 앞서 말한 윤서와 준후가 제안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17 신비는 준후의 말을 중간에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비난하고 있다. 이는 협력적인 토의 진행을 방해하는 태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18 이 토의의 종류는 패널 토의로, 패널 토의는 어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패널이 된다. 패널들이 각자 제안을 하고 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 마지막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오답풀이 ① 토의 참여자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다른 토의 참여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토의의 끝부분에서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청중이 아니라 토의자 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이 토의에는 중학생인 우주, 윤서, 준후, 신비만 참여하고 있을 뿐, 전문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⑤ 중간에 사회자인 '우주'가 '이번에는 준후 학생의 제안에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사회자가 순서를 정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준후는 한 달에 한 번 '분실물 찾아 주는 날'을 정하자고 하고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할 학생들도 따로 모집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20 토의의 주제는 구성원들이 관심을 두는 공동의 문제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④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주제이므로 토의가 아닌 토론의 주제로 적절하다.

21 이 글의 문제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학교 친구들이나 불특정 다수의 중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 그룹이 되어야 한다.

22 이 글의 서론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은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주변적인 내용이나 문제 상황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 중학생의 공부 습관이나 공부 태도와 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여 주기 위한 예이다. 전체 내용을 종합하지 못하므로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할 경우 사회성이 발달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 역시 전체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운동을 하자고 할 수는 있다. 이 글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심 내용이지, 운동 자체가 중심 소재는 아니다.

23 이 글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을 해치는 것, 각종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언어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24 ㉠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25 **서술형** (라)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스마트폰 소통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비대면 소통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이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4 horizontal dott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 framed by a light blue border with decorative cloud-like shapes at the top and bottom corners.